

전략연구 2011-07

충남 농촌 주민의 생활상 연구

- 수도권 평야지역 1개 마을을 중심으로 -

조은정 · 문정환

발 간 사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주목받고 국민들의 관심과 이용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농업·농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치중한 측면이 강하여 실제 정책의 수혜자인 농촌 주민들의 삶과 생활을 실제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 주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또한 이들의 삶과 유리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충남 농촌 주민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마을의 현실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농촌 주민과 마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라는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애써 주신 충남발전연구원의 조은정 연구원과 문정환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불어 연구 수행과정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농촌농업연구부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신 화정리 마을 이장님과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4

제2장 이론적 검토

1. 농촌사회의 변화	7
2. 기존 선행연구 검토	11
1) 농촌마을과 농촌주민 생활상에 관한 연구방법 검토	11
2)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측정 및 향상에 관한 연구	13
3) 농촌 주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14
4) 농촌지역 또는 농촌주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항목 검토	17
3. 시사점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제3장 분석틀 및 조사대상지역 개요

1. 조사 모형의 정립	24
1) 조사 설계 방향	24
2) 조사부문 및 항목 설정	25
3) 조사·분석방법	32
2. 조사대상지역의 개요	33
1) 일반 개요	33
2) 인구구조의 변화	37

제4장 충남 농촌 주민의 생활상 분석

1. 농촌 주민의 서비스 수혜 실태	39
1) 주거 부문	39
2) 교통 부문	41

3) 교육 부문	42
4) 보건의료 부문	44
5) 사회복지 부문	45
6) 응급 부문	46
7) 문화여가 부문	48
8) 정보통신 부문	49
2. 농촌 주민의 생활상 분석	50
1) 삶터에서의 주민 생활상	50
2) 일터에서의 주민 생활상	67
3) 쉼터에서의 주민 생활상	88
3. 종합고찰	98

제5장 결 론

1. 요약 및 결과	101
2. 연구의 한계	105

참고문헌	106
------------	-----

부 록

부록 1 : 농촌 주민 생활상 연구 조사표	111
부록 2 : 농어촌 서비스 기준	129

표 목 차

<표 2-1> 농촌지역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목적 및 조사부문	19
<표 2-2> 농촌주민 생활실태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목적 및 조사부문	21
<표 3-1> 조사 부문	25
<표 3-2> 농어촌 서비스 기준 부문별 구성	26
<표 3-3>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세부부문별 조사 항목	27
<표 3-4> 경제활동공간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세부부문별 조사 항목	29
<표 3-5> 경관 및 환경공간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세부부문별 조사 항목	31
<표 3-6> 응답자 개인과 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항목	32
<표 3-7> 조사대상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37
<표 4-1> 주거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40
<표 4-2> 교통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41
<표 4-3> 교육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42
<표 4-4>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44
<표 4-5> 사회복지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46
<표 4-6> 응급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47
<표 4-7> 문화여가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48
<표 4-8> 정보통신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49
<표 4-9> 연령별 인구현황	50
<표 4-10> 마을 거주기간	51
<표 4-11> 마을에 거주하게 된 동기	52
<표 4-12> 향후 이주하려는 이유	54
<표 4-13> 자가 주택 소유자의 주택마련방법	54
<표 4-14> 주거 환경 만족도	55
<표 4-15> 주택 우선 수리 희망부분	56
<표 4-16> 주관적 건강상태	57
<표 4-17> 개인의 질환 종류	58
<표 4-18> 의료기관 이용 현황	59
<표 4-19> 지역 외 의료기관 이용 사유	59
<표 4-20> 의료기관에의 통원치료 빈도	60

<표 4-21> 충청남도 복지 정책의 혜택 또는 희망 여부	62
<표 4-22>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한 점	63
<표 4-23> 컴퓨터 사용 빈도	63
<표 4-24> 컴퓨터 사용 시간	64
<표 4-25> 컴퓨터 활용용도	64
<표 4-26>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65
<표 4-27> 우울감 또는 소외감을 느끼는 빈도	66
<표 4-28> 평소 도움을 주는 사람	66
<표 4-29> 마을의 경지조건	68
<표 4-30> 취업자 비중 및 농업 종사자 비중	68
<표 4-31> 무직자들의 이전 직업	69
<표 4-32> 조사대상자의 직업 내용	70
<표 4-33> 부업 종류 및 투자시간	70
<표 4-34> 현 직업에의 종사기간별 종사자 수	71
<표 4-35> 현 직업의 종사 이유	72
<표 4-36> 취업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73
<표 4-37>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어려움 수준	74
<표 4-38>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장래성	75
<표 4-39>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시 우선 고려사항	76
<표 4-40>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동향(1981년~2008년)	77
<표 4-41> 보유 농기계 종류	78
<표 4-42> 농산물 판매방법	79
<표 4-43> 농부증 발현율	79
<표 4-44> 농약작업 관련 증상	80
<표 4-45> 농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안전도	80
<표 4-46> 농가 소득 규모	81
<표 4-47> 비농가 소득 규모	82
<표 4-48> 무직자들의 생활비 조달방법	83
<표 4-49> 생계보조수당이나 연금액의 부족 수준	84
<표 4-50> 월 평균 지출액	84
<표 4-51> 지출액 비중별 순위	85
<표 4-52> 노후준비 방법	86
<표 4-53> 생필품 구입을 위한 방문 지역	87
<표 4-54> 주민들이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	88

<표 4-55> 여가시간을 보내는 공간	89
<표 4-56> 평소 주로 만나는 사람	89
<표 4-57> 평소 주로 나누는 이야기	90
<표 4-58> 국내외 여행 빈도	92
<표 4-59> 여가활동 장애요인	93
<표 4-60> 마을의 환경오염 수준	97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그림 3-1> 조사대상지역의 위치도	34
<그림 3-2> 조사대상지역의 주요 시설 위치도	35
<그림 3-3> 조사대상지역의 빈집·빈터 분포도	36
<그림 4-1>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연령별 경향	57
<그림 4-2> 상수리목마을 안내판	67
<그림 4-3> 농업 종사자와 비농업 종사자의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견해 차이	75
<그림 4-4> 국내외 여행 여부	91
<그림 4-5>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94
<그림 4-6>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95
<그림 4-7> 재활용품 처리방법	95
<그림 4-8> 폐영농자재 처리방법	96
<그림 4-9> 오폐수 처리방법	96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그동안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사업내용을 달리하며 새로운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산업화 초기단계인 1960-70년대 농촌개발은 식량증산과 저곡가 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농촌개발 방식은 농업소득 보전을 목표로 하는 농촌개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간의 각종 농촌개발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의 시행 등과 같이 일부 제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991년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발계획 수립기회가 제공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주목하여 생산주의적 농업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정책으로 농정의 방향전환을 도모하였다(임형백·이성우,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촌은 여전히 인구 과소화 및 노령화, 농림어업 쇠퇴 및 소득 수준 저하, 생활환경수준 취약 등의 문제를 지닌 채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 읍터로써의 농촌은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복지기반이 열악해 농촌에서 정주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 거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일터로써의 농촌은 농가소득 감소, 농가부채 증가, 농외취업기회 제약, 소득 격차 확대, 농업경쟁력 부족 등이 농촌의 취약한 경제활동기반을 입증하는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쉼터로써의 농촌은 인간의 농업 활동과 환경부하, 무질서한 토지이용 및 난개발로 경관 및 환경 파괴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농촌의 생활은 어렵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그리 밝지 않다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박진도 등, 2005, 김태명 등, 2010).

그렇다면 과연 농촌 주민들의 삶 또는 생활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통념상 그러지는 농촌의 이미지를 실증하고 그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진데 반해 농촌 지역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농촌 주민에 대한 고찰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동안 펼쳐온 각종 농촌정책과 사업은 중앙정부가 설정한 범정부적인, 소기의 목표치를 이루어 내는데 주력한 목적 달성 지향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따라서 실제 정책의 수혜자인 농촌 주민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 농촌주민의 삶과 생활에 대한 실체, 그리고 이에서 비롯된 요구 등에 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진행되어 왔다.

물론 현재 농촌주민의 삶의 모습을 추적하기 위한 여러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지만, 이 또한 양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농촌 또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자료들은 자료의 단위수준이 전국 또는 시·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균적인 의미에서의 거시적 특성 밖에 파악할 수 없으며, 마을이나 주민 개인 단위에서의 세부적인 실상이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김용렬 등, 2008).

이처럼 농촌 주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또한 이들의 삶과 유리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농촌 마을마다 서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다 시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변화과정을 겪는 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변화에 대한 역동적(dynamic)인 시각을 견지하지 못한 채 정적(static)인 시각에서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는 경향이 있어 농촌에 대한 정부사업은 마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 단편적으로 적용되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미진한 수준에 그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앞서 우선 농촌지역 주민들이 과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농촌 주민을 위한, 그리고 농촌마을을 위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라는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롯하여 본 연구는 충청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촌지역개발 사업이 농촌지역의 현실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충남 농촌 주민의 생활상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충청남도 농촌 주민의 삶과 생활에 대한 분석이 농촌 지역의 현재를 조명하고,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과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농촌개발정책 추진에 앞서 충남 농촌 주민의 생활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농촌사회와 농촌 주민 생활에 관련한 연구 및 문헌을 바탕으로 농촌마을의 특성과 농촌 주민 생활, 그리고 마을과 주민 생활간의 사회적 작용 양상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둘째, 농촌마을의 인문, 사회, 경제적 특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기초하여 농촌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실태에 대해 점검한다.

셋째, 농촌주민들이 생활공간, 경제활동 공간, 경관 및 환경공간으로서의 농촌 공간 내에서 영위하는 삶 또는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농촌 지역개발 정책의 방향제시에 기여하도록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된 연구내용으로서 ① 농촌 사회의 변화와 특성에 대한 논의 분석, ② 농촌지역과 농촌주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③ 농어촌 마을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 ④ 농촌 주민의 생활상 분석 및 고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 사회의 변화와 특성에 대한 논의 분석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등의 검토를 통하여 농촌 사회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농촌 사회가 지니게 된 특성 및 기능에 대한 논의를 분석한다. 이는 농촌지역의 변화

와 특성 등이 농촌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② 농촌지역과 농촌주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농촌지역과 농촌주민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실태와 농촌주민의 생활실태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고 기존의 연구가 갖는 한계를 도출한다. 농촌지역의 실태는 '농촌'이라는 공간이 갖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고 농촌주민의 생활실태는 농촌지역에서 삶의 영위하는 '주체'의 일상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 및 재정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의 농촌 주민 생활상 조사 항목을 설정하도록 한다.

③ 농어촌 마을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

사례 마을의 인문, 사회, 경제, 환경적 특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함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기초하여 실제 농촌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도록 한다.

④ 농촌 주민의 생활상 분석 및 고찰

충남도내 농촌 마을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해 묘사적으로 조사하고, 생활실태를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농촌(공간)과 주민(주체) 간의 사회적 작용 맥락 속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 생활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촌 주민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농촌 주민의 일상에 대한 서술과 생활실태에 대한 분석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질적인 연구방법과 양적인 연구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 및 분석틀 설정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마을, 농촌주민에 관련한 선행 연구 및 문헌 검토를 통하여 농촌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농촌의 변화와 특성, 농촌 주민 생활에의 영향 등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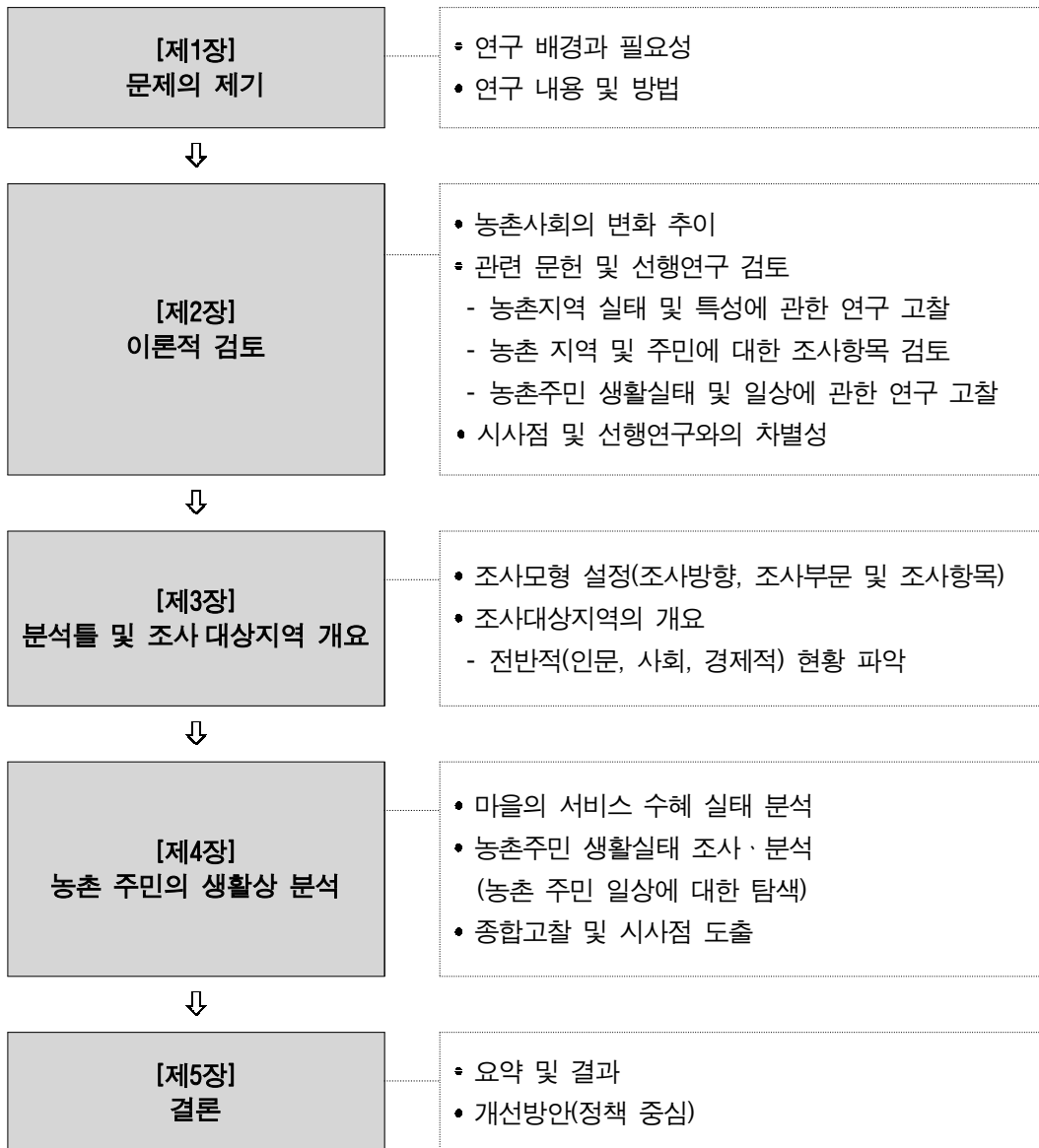
또한 농촌마을 또는 농촌주민에 관련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충남 농촌 주민의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정한다.

② 현장조사와 통계자료를 통한 농촌 마을의 전반적 실태 분석

현장조사와 농촌마을 통계자료 검토를 통해 농촌 마을의 인문, 사회, 경제, 공간·구조적, 환경적 현황 등을 파악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따라 마을 단위에서의 서비스 수혜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③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한 농촌 주민의 생활상 분석

농촌 마을 주민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심층적이고 사실적으로 살펴보고 동시에 생활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민들의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다. 질적·양적인 측면에서의 동시적 접근을 통해 개인으로써의 삶이 농촌마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촌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살펴본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검토

1.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의 변화는 신석기 농경문화가 정착된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농촌사회의 변화를 말할 때, 산업혁명 이후의 농촌 사회에 주목하는데 그 이유는 농촌사회가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서구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서 도시가 부각되었고 농민들은 점차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농촌사회는 어디까지나 도시에 값싼 음식물과 저임금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후지로 기능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정책입안자들은 도시와 차별화되는 농촌만의 역할을 모색하기보다, ‘농촌지역의 도시화’를 주장하며 정부가 개입하여 개발하여야 할 지역으로 인식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농촌사회는 단지 인구의 감소, 빈곤, 열악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도 그랬다(임형백·조중구, 2004).

우리나라는 60년대 경제개발계획, 70년대 중화학공업화, 80년대 첨단산업의 육성 등과 같은 공업 위주의 발전 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공업화 전략은 도시화를 가속화하였고 동시에 농업·농촌에 대한 불균등 문제를 초래하여 농촌사회는 해체 또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90년대부터 이러한 농촌사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윤근섭(1993)은 공업화와 도시화가 산업간·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에 주목했다. 도시와 공업의 발달은 농촌을 도시에 대한 식량과 인력 공급기지로 전락시키는 희생과 함께 농촌지역 주민의 빈곤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권태환(1992)은 농촌사회의 변화를 인구 구조적 변화와 커뮤니티 변화 측면에서 접근하였는데, 독거노인 가구의 급증, 남성과 여성의 결혼 연령 차이 확대, 이혼율의 상대적 증가, 커뮤니티의 해체 등을 농촌사회 변화의 문제점으로 밝히고 있다. 90년대 이후 농촌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농촌지역은 지난 30~4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고, 농촌 사회의 공동화나 빈곤화는 농촌사회 변화의 일반적이고 결과론적인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농촌사회의 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는 1970년 1,850만 명에서 2005년 876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행정구역상 ‘면’ 단위에서 살펴보면 1975년 대부분의 면 규모가 인구수 10,000명 이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4,000명 이하인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행정구역상 ‘반’ 단위에서 살펴보면 1989년 80명 내외 수준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5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30년 만에 4.2%에서 18.1%로 증대하여, 우리 농촌 사회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를 함께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은 향후 10년이 지나면 현재 인구의 42% 정도가 더 줄어들고, 노령화 정도는 더욱 심화되어 60세 이상이 80%, 80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병기, 2010). 이처럼 농촌인구의 과도한 이탈과 고령화로 농촌사회의 활력은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삶의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는 농촌사회의 경제적 낙후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 1960년대 정부는 생산성 증대를 통한 식량자급에 열을 올렸으며 이를 위한 시설 정비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보급 사업을 시행하였다(제3차 농업증산5개년계획). 1976-1978년 우리나라는 쌀 자급자족을 마침내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의 생산량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였고 결과적으로 쌀은 점차 남아돌게 되어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들어 해외의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식량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가격 면에서도 수입농산물에 뒤처지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또한 줄어들면서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고, 식량공급지로서의 농촌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기에 이르렀다(임형백, 2006).

농가소득의 하락은 농업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농민들의 취업구조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전업농이 감소하고, 제 2점업농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에서 증명된다. 농촌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촌은 농민과 빈농민이 함께 사는 혼주사회로 전환되었다. 2005년 농어촌 시·군의 산업구조를 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0.2%에 불과하며, 제조업(22.6%), 음식·숙박·운수업(11.4%), 도소매유통(9.1%) 등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박진도, 2010). 농촌사회는 과

거 농업만이 삶을 지탱시켜주는 공간에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이 결합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농업에서의 소득을 증가시킬 만한 획기적인 방도가 없는 이상 차후에도 농업취업자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감소, 고령화, 농촌경제의 침체는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도시화와 산업화 이후 농촌 사회가 도시에 식량과 인력을 공급하는 종속적인 지위로 전락하게 된 것과 맞물린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의 농정은 농업확장주의에 따른 농업생산력 향상에만 몰두해왔으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왔다. 1980년대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에 따라 농촌에 대한 정주생활권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인간의 일상적인 삶이 영위되는 공간’으로서의 농촌 공간에 대한 인식이 도입되었으나, 군 단위 개발계획에 대한 재원 마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추진되어 삶의 질에 대한 농촌지역주민의 기대수요만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최수명 등, 2011).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타개하고 농촌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탱시켜줄만한 정책의 부재로 인해 농촌지역의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의 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 기능 또한 축소되었다. 농촌지역의 수많은 학교들이 폐교됨에 따라 자녀들은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병원을 가기 위해서도 읍이나 시 지역으로 나가야만 한다. 1989년에 이미 병원의 80%이상이 도시지역에 집중되기에 이르렀고, 농촌 주민들은 생산수준의 저하와 함께 생활 및 문화수준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이들이 농촌 밖으로의 이주를 감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윤근섭, 1993).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 사회가 악화된 것과 더불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농촌만의 특징을 만끽하고 쉴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이 점차 사라졌다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농촌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지만 농촌 마을마다 각각의 특성을 갖춘 공간을 무너뜨리고 유사한 형태의 시설물로 재배치시켰다는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전통농촌사회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쉴 수 있는 사랑방, 초당, 모정, 우물가, 빨래터 등의 독특한 물리적 공간들이 사라지고 어느 마을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모정, 노인정, 마을회관이 대신 들어서게 되었다. 집들도 빨간색이나 파란색 지붕을 갖춘 시멘트 바른 주택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농촌은 도시의 식량수요를 채우기 위해 증산에 적합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대량으로 사용해왔다. 이는 토양을 산성화시켜 물질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국 지력이 쇠약해지도록 하였다. 축산분뇨, 농업쓰레기, 폐영농자재 등의 무분별한 사용은 농촌의 자연환경을 훼손시켰고, 최근에는 소규모 가공 공장의 건립과 골프장이 난무하게

들어서면서 농촌 어메니티를 갖춘 휴식공간으로서의 농촌이 악영향을 받았다(김태명, 2010).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농촌사회의 변화는 농업을 바탕으로 작동하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마을에 있던 협업과 품앗이를 기반으로 한 생산조직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라는 국가중심의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 마을의 사회적 관계를 재조직하였다. 1980년대가 되면 농기계가 보급됨에 따라 점차 자가영농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가구들 간의 협업인 ‘품앗이’가 사라지게 되고, 인력이 필요할 때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마을 외부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하게 되었다. 농기계의 보급과 새마을운동에 따른 농촌 사회 조직의 해체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마을을 지탱해왔던 협동노동이나 교제, 연중행사 등 영농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관행이 해체되거나 소멸되었으며, 전통적 가치나 자원 또한 사라지거나 과거와 단절되게 되었다(오창현, 2005). 혈연이나 지연조직의 사회관계도 약화되거나 해체되어, 동족이 더 이상 연대나 통합의 조건이 되지 않게 되었다. 같은 성씨를 기반으로 한 농촌 리 단위 마을의 사람들도 동족 간의 관계 보다는 평범한 이웃관계로 전략하게 되었으며, 마을의 축제나 공식적인 행사도 점차 소멸되었다. 보통의 농촌 마을에서는 교회나 계를 기반으로 한 느슨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만이 옛 조직들을 대체하고 있을 뿐이며, 부분적으로 영농조합이나 작목반과 같은 형태의 생산 조직들이 생겨나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적 조직으로 역할하고 있다. 농업 생산 부분에도 새로운 기술 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마을마다 이어져 오던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 생산방식은 의미를 잃어가고,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기관과 마을 내 개인 간의 접촉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농촌사회는 농촌 마을의 통합 기능을 담당했던 기존의 공동체적 관계가 해체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관계의 결합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관계는 단단하고 결속력 있는 기존의 마을 내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결합되고 해체 가능한 도시와 농촌, 농촌 주민과 공공 기관, 마을과 마을간 등의 결합 형태를 띠고 있다.

본 절에서는 농촌사회의 변화를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 현재 농촌사회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 농업 소득의 감소와 혼주화,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안정적인 삶의 유실, 농촌 공간의 획일화와 환경적 파괴에 따른 쉼터로서의 기능 상실, 농촌 마을의 공동체 관계의 붕괴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형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기존 선행연구 검토

1) 농촌마을과 농촌주민 생활상에 관한 연구방법 검토

마을에 대한 연구는 국가가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되었다. 조선시대의 ‘읍지’는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여 조세와 군역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의 마을 연구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마을 연구는 지방지를 편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마을에 대한 연구 방법론이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 인류학자들이 마을 연구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이들은 서구에서 인류학 훈련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마을을 문화의 전승 단위로 보고, 마을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들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1980년대 민속학적 연구로 이어졌으며, 이는 마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또한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마을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며, 개인에게는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김창민, 2008). 이러한 인식적 전환은 마을에 대한 연구 관점을 풍부하게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지방사 연구나 마을지 편찬, 민속학적 수집뿐만 아니라 마을의 특정 공통적 경험을 한 사람들의 개인사나 생애사, 마을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나 조직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연구주체의 지평이 넓어진 만큼 이에 접근하는 마을 조사 연구방법의 형태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민속학에서는 주로 마을의 별신제, 풍물, 공동의례 등 아직까지 마을에 남아있는 전통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기적인 참여 조사와 관찰이 연구 방법의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으며, 현재 그 모습을 보기 힘든 형태의 민속학적 전통에 대해서는 관련 생존자들의 구술 채취 등에 의존하곤 한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실적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 간의 비교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창식, 2006, 손우승, 2005)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김필동, 2011)은 마을의 급격한 해체에 따라 마을이 지닌 전통이나 문화적 가치, 생활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을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리, 역사, 경제, 사회, 일상생활, 민속 등 각 분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된 각종 문헌들을 수집하여 마을의 형성과 변천, 생산 활동과 노동, 사회생활과 문화, 삶과 애환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기록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총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역사학, 사회학, 민속학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마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을에 대한 연구가 항상 과거의 전통적 요소들에 대해 국한된 주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경혜(2005a, 2005b)는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의 특성과 농촌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상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마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복합적 모습을 탐색하였다. 특히, 마을에 대한 계량적 실증조사에 의한 연구들은 마을 주민의 삶에 대한 전반적 경향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효과적이지만 구체적인 삶이 특정 변수로 분해되어 마을의 현지성과 삶의 경험의 구체성이 증발되어 버린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 탐색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특정집단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연구자가 면담법과 참여관찰을 토대로 발생하는 상황과 활동을 연구자 스스로가 관찰한대로 서술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연구현장에서 연구대상이 말하고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그 지역의 물리적 장소나 공간, 사건들을 관찰하며 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현재 생활실태를 연구하는 여타의 계량적 연구방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극복하고 나아가 생활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형태의 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기존에 이루어졌던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욕구 실태, 농촌 주민의 생활 또는 생활실태에 등에 관련한 다수의 연구 대부분은 조사항목 설계를 통한 정량적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먼저 연구자의 관심주제에 맞는 조사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에 부합하는 세부항목(변수)들을 배열하여 질문지를 구성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 값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즉 수치를 통한 양적 통계 분석의 결과 값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주민의 삶의 질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또는 생활실태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석소현, 2008, 최윤지, 2010). 정량적 조사방법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며, 그런 만큼 수치를 통한 비교 연구로 확장된다(손신영, 2006, 오승환 등, 2006, 강주희, 2008).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이 가지는 요인을 변수화시켜 생활의 특징적인 부분과 교차분석을 통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김인, 2006, 박공주, 2004).

2)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측정 및 향상에 관한 연구

인간이 삶 속에서 실현시키거나 경험하게 되는 객관적 상황 또는 주관적 만족도 등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매우 다양해진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주관적 지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다.

또한 제도나 정책 등과 같은 사회적 수단은 개인의 필요욕구와의 결합 또는 대응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 안정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정책과제로 작용한다.

박대식 등(2002)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현재 상황 그대로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문제인식 아래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향성을 제공하고, 삶의 질 측정 지표체계 및 조사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연구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련한 국내외 지표들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조사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7개 부문 총 87개 지표)를 마련하였다. 또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4가지 조사방안(전국단위 기존통계자료 활용, 삶의 질 실태에 대한 간이조사, 총 조사,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농촌진흥청(2010)에서는 1999년부터 ‘농촌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장단기 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농촌지표’를 발간하고 있다. ‘농촌지표’는 농촌이 처해있는 상태, 지역개발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측정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다루었으며, 이 외에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삶의 질 중에서 주관적인 부분에 제한하여 진행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손신영(2006)은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요인들을 비교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경상북도 5개 농촌지역(면)과 대구광역시 5개 도시지역(동)을 표본으로 선택하여, 경제적 상태, 자아존중감 등에 대한 설문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함의 정도가 낮

게 나타난다는 결과들을 도출하였으나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이고 예상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석소현(2008)은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비교 연구하여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우울,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승환 등(2006)은 삶의 질을 경제적 삶의 질, 건강측면적 삶의 질, 사회적 삶의 질로 구분하고 도시, 농촌,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경제적 삶의 질 부문에서는 농촌·어촌지역의 노인에 비해 도시지역의 노인이 경제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강적 삶의 질 부문에서는 어촌노인의 질병 질환수가 가장 높으며, 사회적 삶의 질 부문에서는 어촌지역이 가장 고립되어 있음을 밝혔다.

강희숙 등(2004)은 기존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주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앙정부 혹은 전국적 차원에서의 비교연구로 이루어졌으며, 객관적인 자료조사방법에 의존하여 농촌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한국판 WHOQOL-BREF'를 활용하여 삶의 질에 대한 5개 영역(전반적 만족,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생활관계)에 대하여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고, 농촌주민의 특성에 따라 주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주민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경제적 여건은 삶의 질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등을 밝혔다.

3) 농촌 주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주관적 또는 객관적 측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 경제활동, 커뮤니티 등과 같은 관심영역에 대한 기초적 실태를 사실적으로 조사·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는 삶의 질에 대한 연구보다 연구범위와 조사항목 및 내용이 더 세부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한 그간의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수요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방향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에 따라 그간의 연구를 구분해보면, 노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권일남(2001), 김경준 등(2006)은 각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복지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일남(2001)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등과 같은 청소년 육성정책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농어촌청소년의 복지실태(청소년 관련 공공조직 현황,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 문화 및 복지관련 주요 프로그램, 문화 공간 등)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를 통해 농어촌청소년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농어촌 청소년 복지정책을 통한 혜택, 제공 서비스의 주안점, 서비스 전달 절차, 재원확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김경준 등(2006)은 농촌 청소년 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 청소년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내용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관련한 영역(교육, 보건·의료, 주거, 경제)과 농촌 청소년 복지영역(진로·직업, 청소년발달·문제예방, 문화·여가생활)으로 구성하였다. 농촌 청소년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에 기인하여 농촌 청소년들의 진학 및 사회교육기회 확대(다양한 특성화학교 설립 또는 사회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강화, 상담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 농촌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실태에 대한 연구 또한 다수 진행되었는데, 강주희(2008)는 노인복지 수요와 자원의 지역별 비교분석을 통해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와 자원이 지역 간에 불균형 상태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인(2006)은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수준(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사회 문제, 노인복지 문제 3개 부분 22개 항목)을 점검하고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빈곤상태에 빠져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외로움, 용돈부족, 의료서비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였다. 김은정(2011)은 전국단위로 실시된 “2008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욕구유형이 농촌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건강관련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노인들은 대체로 기초소득의 보장, 일자리 지원, 돌봄 지원, 예방 및 건강 증진, 교육·문화 환경 조성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만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기초소득 보장보다는 일자리, 돌봄, 예방 및 건강증진, 교육·문화 환경 조성 등의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지원이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선희(2000)는 농촌 노인의 거주형태, 부양체계, 일상생활동작 수행정도, 여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관과 실무자의 구성, 기관의 운영방식을 제안하고, 예산과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농촌 노인 복지시스템 모형을 제안하고 노인복지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밝혔다.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하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방문간호사업, 밀반찬배달 사업 등을 통합하여 단일 노인복지기관이 공동쇼핑, 물리치료, 주간보호, 여가/취미활동, 급식 제공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활동실태에 대한 연구로, 박진도(2010)는 농촌사회경제의 구체적 변화과정을 밝히기 위해 농촌사회의 인구구조, 취업구조, 계층구조, 삶의 여건 변화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마을 존립의 위협, 혼주화로 인한 비농업취업자 비중 증가, 양극화 현상의 지속 및 영세농 증가, 주민들의 경제상황 악화 등이 파악되었으며 농촌마을의 안정을 위해서는 귀농·귀촌 대책, 농업소득 안정, 고령자 일자리 창출, 비농업취업기회 확대, 지역농업의 조직화, 고령영세농을 위한 복지대책, 농촌지역리더의 육성 등이 필요함을 밝혔다. 고정숙(2006)은 개방화로 인해 농업·농촌이 직면한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는 문제 인식 아래, 농촌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농촌 주민의 경제생활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소득 및 부채현황, 가계관리, 경제생활전만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의 구체적인 경제생활실태에 대한 사례 묘사를 추가하여 양적인 통계가 구체적인 맥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를 통해 농촌 노인의 미래생활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 저조한 저축행태,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을 밝히며, 농촌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범정부적 정책마련이 시급함을 언급하였다. 박공주(2004)는 농촌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초실태를 조사하고 차후 고령농업인의 욕구를 고려한 생산적 활동 중심의 특성화된 경제활동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농촌 노인은 주관적 경제수준이 좋지 않으며 농가의 평균농업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별로 농업 외 취업욕구에 대한 경향이 달리 나타났으며 성별과 동거인 유무에 따라 노후준비가 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에 처한 농촌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농촌 노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로, 서선희(2004)는 농촌 노인의 정서적 욕구 충족과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들의 비공식적인 관계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관계를 친구와의 교류, 이웃과의 교류, 형제자매와의 교류, 자녀와의 교류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신체·서비스적 기능, 정서적 기능, 의례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농촌 노인의 정서적 기능은 친구를 통해, 신체 서비스적 기능은 이웃을 통해, 의례적 기능은 형제·자매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농촌지역 또는 농촌주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항목 검토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농촌지역 또는 농촌주민의 생활실태에 관련한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농촌진흥청(2010)은 농촌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장단기 정책 및 사업계획이나 추진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농촌지표’를 발간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삶의 질 및 농촌지역개발 사업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요구, 기존 자료의 이용가능성, 삶의 질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분류경향을 반영하여 총 10개 부문 49개 영역 296개 지표를 설정하고 각종 기관의 기존 통계자료를 재가공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직접 생산하여 작성하였다.

김대식 등(2010)은 기존의 정책과 사업에서 사용한 지표들을 정리하여 1차 시안을 작성하고 농촌마을단위에서의 적용가능성과 자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여 농촌마을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농촌마을 정주환경진단지표(5개 영역, 13개 항목, 40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지표를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마을단위의 진단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DDA·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낙후한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특별법”이 제정되고, 매 5년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11개 정부부처(2009)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성된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8개 분야 31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고 각 서비스기준의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펼쳐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를 최소 수준 이상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김창현 등(2007)은 농촌지역 단위에서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농촌 관련정책 집행에 연계·활용하기 위해 지역진단지표체계(인구사회, 산업경제, 공간입지, 생활여건 4개 진단부문, 15개 진단항목, 38개 진단지표)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지역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정책, 건강보장 정책, 교육 및 여가정책, 주택보장 정책 등 농촌의 지역특성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집행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농촌진흥청(2005~)은 농촌의 지역성을 보전하고 농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행정리를 조사단위로 하여 전국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자원정보 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다. 농촌어메니티 자원은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 고건축물, 경관, 농촌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나 전통 등 농촌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은 환경관리 시설자원, 지형자원, 동물자원, 수자원, 식물자원, 전통자원, 경관자원, 시설물자원, 특산자원, 공동체자원 등 10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박대식 등(2002)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 7개 부문에 대한 총 87개 지표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향후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삶의 질 측정 조사체계를 제안하였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촌지역사회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집락카드와 농촌집락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조사대상은 약 11만개의 농업집락과 농촌집락으로(자연발생적으로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지역사회로 지연적, 혈연적인 관계 및 각종의 집단, 사회관계를 형성해 온 사회생활의 기초적 단위) 우리나라의 행정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농업집락카드는 세계농림업 센서스 조사결과의 하나로 총 농가수, 주/부업별 농가수, 전/겸업별 농가수 등 농업활동을 둘러싼 경제적 조사와 함께 농촌지역사회의 최소 커뮤니티 단위인 주민조직, 집회(모임), 교류사업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의 농업진흥계획, 시정촌의 행정, 시장조사 등에 활용된다. 농촌집락조사는 농림업센서스의 부대조사로 집락 생활환경, 집락 기능 및 활동, 커뮤니티 활동 등 농촌사회구조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모두 16개 영역, 8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 농촌지역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목적 및 조사부문

구분	연구자	목적	부문	영역	지표	부문
농촌	농촌진흥청 (2010)	농촌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장단기 정책 및 사업계획이나 추진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10	49	296	인구 및 가구, 식품산업 및 영양, 주거 및 생활환경, 생산 및 소비, 지역개발, 교육, 여가문화, 안전 및 건강, 사회복지, 사회참여 및 농촌공동체
	김대식 등 (2010)	농촌마을단위 정주환경 진단 지표 개발	5	13	40	인적자원 구성, 주민건강 및 삶 의 질, 산업경제기반, 생활여건 환경자원, 정주기반기본시설
	정부부처 (2009)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 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 준을 설정하여 운영	8		31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 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김창현 등 (2007)	농촌 관련정책 집행에 연계될 수 있는 진단지표·기준을 마 련하고 그 결과와 연계되는 지역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4	15	38	인구사회, 산업경제, 공간입지, 생활여건
	농촌진흥청 (2005~)	농촌의 지역성을 보전하고 농 촌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농촌 어메니티 자원 조사 및 발굴	3	10	66	자연적 자원, 문화적 자원, 사회 적 자원
	박대식 등 (200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수준 측 정 및 정기적인 실태 조사	7	30	87	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 된 삶, 즐기는 삶
집락 (일본)	농림수산성 농촌집락조사	약 11만개의 농촌집락(행정리) 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집락 기능, 커뮤니티 활동 등 농촌 사회구조 파악	3	10	86	집락활동, 농업분야의 공동 활동, 집락생활환경
	농림수산성 농업집락카드	농업집락(농촌집락과 유사)을 대상으로 실시, 농업진흥계획, 시정촌의 행정, 시장조사 등 에 활용		16	86	기본지표, 호수, 인구, 토지, 가축, 청부의 유무, 농기계, 입지조건, 농업생산, 농업집락의 관행, 지역 환경자원, 생활환경, 지역조직, 교류사업, 분석지표, 유형구분

손신영(2006)은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상태, 자아 존중감, 사회적지지, 신체적 기능, 우울, 삶의 만족도 6개 부문 85개의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오승환 등(2006)은 도시, 농촌,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3개 부문(경제적 삶의 질, 건강측면에서의 삶의 질, 사회적 삶의 질), 37개의 지표로 구성된 조사항목을 이용하였다. 또한 강희식 등(2004)은 농촌 주민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생활환경 5개 부문에 대해 26개의 지표를 배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운지 등(2010)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정주여건과 사회서비스 수준 향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농촌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뿐만 아니라 도시민 유입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구축 방향을 모색하고자 농촌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생활환경과 정주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6개 분야(총 24개 지표)별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도농복합지역과 인구규모별 3개 유형 권역 총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생활환경 및 정주서비스 만족도 조사부분 중 문화·여가 부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여성, 아동 및 청소년, 육아·보육 서비스(시설·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농촌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중, 고정숙(2006)은 소득 및 부채현황, 생활비 조달 방법, 가계관리자와 관리방법, 저축실태, 부채실태, 국민연금 수령 및 납입실태, 경제생활변화, 향후 경제생활에 대한 전망 등 총 8개 지표를 통해 농촌주민의 경제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개인 사례들을 첨가하여 양적·질적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또한 박공주(2004)는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실태를 연구하기 위하여 노인의 일반적 특성, 경제실태, 취업활동 실태, 취업활동 요구, 공동작업장 참여의향, 노후생활 준비 6개 부문 17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외에 강현수(2007)는 금산군의 지역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역경쟁력 구성 요소들을 반영하는 11개 부문, 24개 영역, 60개 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83개 기초지자체(군 단위 지역) 중에서 금산군의 상대적 순위를 파악하였다.

〈표 2-2〉 농촌주민 생활실태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목적 및 조사부문

구분	연구자	목적	부문	영역	지표	부문
삶의질	손신영 (2006)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 비교를 통해 삶의 질 영향요인규명	6		85	경제적 상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신체적 기능, 우울, 삶의 만족도
	오승환 등 (2006)	도시, 농촌,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 특성 비교 분석	3		37	경제적 삶의 질, 건강측면에서의 삶의 질, 사회적 삶의 질
	강희식 등 (2004)	농촌주민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 파악	5		26	삶의 대한 전반적인 만족,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생활환경
생활 환경	최윤지 (2010)	농촌지역의 정주실태와 생활 환경 만족도 조사	6		24	도로/교통, 상하수도/청소/쓰레기처리/생활에너지, 보건/의료, 복지, 주거/환경, 문화/여가, 교육, 경제, 지역정체성/공동체, 자치단체/행정 서비스
농촌 경제	고정숙 (2006)	농촌마을의 경제생활실태에 대한 장기변화연구	8		8	소득 및 부채현황, 생활비 조달 방법, 가계관리자와 관리방법, 저축실태, 부채실태, 국민연금 수령 및 납입실태, 경제생활변화, 향후 경제생활에 대한 전망
	박공주 (2004)	농촌노인의 경제활동실태연구	6		17	노인의 일반적 특성, 경제실태, 취업활동 실태, 취업활동 요구, 공동작업장 참여의향, 노후생활 준비
지자체 경쟁력	강현수 (2007)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금산군이 차지하는 상대적 경쟁력 평가	11	24	60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 상생의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시, 문화도시, 여가도시, 관광도시, 숨 쉬는 도시, 깨끗한 도시

3. 시사점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농촌 주민들이 영위하는 생활상에 대한 조사를 위해 농촌마을 및 주민생활상 조사에 관한 연구방법론과 조사항목,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실태에 대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들 연구는 연구목적, 대상범위, 자료취득 등에 따라 조사체계와 조사항목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갖는 차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 생활상 또는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사실적 묘사와 특정부분에 대한 변수화를 통한 계량적 분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 조사를 통한 농촌주민 생활상에 대한 정성적 연구 방법은 장시간 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 주민에 대한 참여관찰과 면접, 문헌 자료 수집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방식은 마을의 역사, 민속, 사회적 관계,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의 축적과 전반적인 정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생활의 특정 면모가 어떠한 원인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는지 분석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진다. 삶의 질, 사회서비스기준, 생활실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마을 주민의 삶의 특정 부분에 대한 계량적 조사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계량적인 조사를 통한 정량적 데이터 수집 및 산출이 가능하지만 심층적이고 주관적인 사항에 대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삶의 맥락이나 요소들이 특정 변수로 분해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단점을 가진다. 특히 삶은 그 삶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나 맥락이 중요함에도 그러한 환경적인 부분들이 이러한 방식의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다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논문에서는 농촌 노인의 소득 저하나 일자리 부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특정 마을의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은 소득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고 답한다. 그러나 기존의 논문은 이러한 현 실상을 다루지 못하거나 설혹 연구에서 다루더라도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도시에 비해 소비·지출액이 적거나 자급자족으로 대부분의 생활이 가능한 농촌의 특성, 농촌 마을에 제공되는 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지원, 경제적 노동 활동에 대한 농촌 노인들의 개인적인 생각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맥락들은 양적인 통계 조사를 통해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마을에서 나타나는 삶의 각 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량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농촌 주민에 대한 심

층면접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개인 생활이나 농촌마을의 특성들을 정성적으로 제시하여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이 농촌주민 삶의 특징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둘째, 기존의 각종 농촌 관련 통계자료들은 전국/시·도/시·군 단위의 통계자료가 대부분 이어서 마을 또는 가구·개인 단위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농촌 주민 생활 모습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비교에 주목하다보니 평균적인 의미에서의 농촌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리 단위의 농촌 마을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마을에 거주하는 전 세대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하고 마을 단위의 삶과 개인 단위의 삶이 결합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농촌 주민은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활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셋째,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심영역인 농촌생활의 특징적인 부분(경제생활,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 사회복지서비스 실태 등)만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의 생활이란 것이 특정 분야에 고립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농촌 주민들이 농촌에서 영위하고 있는 생활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조사항목의 설정 또한 삶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제3장 분석틀 및 조사대상지역 개요

1. 조사 모형의 정립

1) 조사 설계 방향

농촌에서의 삶 또는 농촌 주민의 생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량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농촌 주민의 삶에 대해 심층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농촌에 대한 통계자료 또한 행정구역상 시·군 또는 읍·면 단위로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촌 마을 또는 주민 단위에서의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질적 수준과 체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주민들의 생활상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다 사실적으로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조사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 또는 생활의 실제적 현실과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되 일반성과 특수성, 전반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농촌(공간)에서 주민(주체)들의 삶(활동)이 어떠한 사회적 작용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영향을 주고받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농촌마을과 농촌주민에 기존의 조사·연구 문헌에 대한 분석과 농업·농촌에 대한 시대적 관심 수준을 반영하도록 한다.

넷째, 가구 또는 개인을 조사대상단위로 하였을 때 측정이 가능토록 하고, 최종 분석결과는 마을 단위로 종합평가가 가능토록 한다.

다섯째, 향후 농촌 마을과 농촌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농업·농촌 정책 및 전략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조사부문 및 항목 설정

전통적으로 농촌은 농업을 통하여 유지되는 농민의 일터이며, 정주하는 삶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시대적 변동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의 유지를 통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이 제기되어 왔다. OECD(2001)에서도 경관 및 문화적 전통 유지, 환경보전, 농촌 활력 유지, 식량안보, 야생동물 서식지 제공 등을 농촌의 다원적 기능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주체)들의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이라는 공간을 농촌이 지닌 기능적인 측면에 기준하여 조사의 부문을 설정한다. 농촌을 기능적 요인에 따라 구분하면 생활공간(삶터), 경제활동 공간(일터), 경관 및 환경 공간(쉼터)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삶터, 일터, 쉼터는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화와 영향을 유도하는 작용기제와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민(주체)들이 농촌(공간)에서 영위하는 ‘생활’은 활동 또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조사의 세부 부문으로 설정한다.

단, 경관 및 환경공간(쉼터)으로써의 농촌이 발휘하는 기능 중 생태자원, 전통문화, 농촌관광과 같은 부문은 농촌 주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겪게 되는 생활(활동)이라기보다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일부로써의 측면이 강하므로 조사의 세부 부문에서 제외시켰다.

〈표 3-1〉 조사 부문

공간이 발휘하는 기능에 따른 조사부문	세부 부문
생활공간 (삶터)	주거 및 생활환경, 의료/보건/건강증진, 사회복지, 교육, 도로/교통, 응급/안전, 정보/통신
경제활동 공간 (일터)	경제활동, 농업활동/영농기반, 소득/지출
경관 및 환경공간 (쉼터)	문화/여가, 경관/환경

※ 각 부문에 관련한 활동, 교류, 단체, 조직 포함

그리고 농촌 주민의 생활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대상이 농촌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가구가 되어야 하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제공받는 서비스나 이용하는 시설 등과 같이 마을 단위에서 조사가 보다 용이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의 대상을 마을과 주민 개인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마을에 대한 조사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적용하여 농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받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농어촌 서비스 기준 부문별 구성

부문	관련항목 및 내용
주거(5)	거주가능주택, 난방(도시가스 보급, 난방비 저감정책), 공동시설프로그램(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안전한 마실 물(상수도 보급, 수질관리), 오폐수처리
교통(3)	대중교통운행, 여객선운행(운행 빈도 및 운임비 지원), 인도 설치
교육(6)	유치원/초등학교(적정규모학교 육성, 통학수단), 고등학교(우수고등학교 육성), 폐교 요건(의견 수렴), 방과후학교프로그램, 교육발전위원회, 평생교육(거점시설 운영)
보건의료(3)	1차진료서비스(중요과목 의사 진료), 순회방문, 의약품 구입(접근성 향상)
사회복지(5)	노인(재가노인복지서비스),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접근성 향상)
응급(5)	응급서비스(대응력 향상), 도서·벽지서비스(응급환자이송체계), 소방서비스(대응력 향상), 도난방지(CCTV 설치), 경찰서비스(대응력 향상)
문화여가(3)	독서(열람, 대출 서비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정보통신(1)	초고속망(초고속망 접속 및 IPTV 시청)

주민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조사항목은 선행연구 자료와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촌 주민 생활에 관련된 조사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후 조사부문에 따라 분류하였다. 종합된 조사항목은 농촌 주민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는지 여부와 시대적 관심사 변화에 따라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제외시켰다. 이외에 농촌주민 삶의 현실성과 특수성을 반영함에 있어 누락된 조사항목들을 추가하여 설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조사항목은 그대로 인용하거나,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설정된 주민 조사항목은 다음 <표 3-3>, <표 3-4>, <표 3-5>와 같다.

〈표 3-3〉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세부부문별 조사 항목

세부부문	조사항목	항목 조정		농어촌 서비스 기준 관련항목
주거 및 생활환경*	주택 소유형태	인용		
	자가 주택 마련방법	인용		
	주택 건축년도(주택의 노후도)	변경	주거환경 불만족 사유	
	주택 규모	통합변경	주거환경 불만족 사유	최저주거기준
	주택 방 개수	통합변경	주거환경 불만족 사유	최저주거기준
	주택 외형	통합변경	주거환경 불만족 사유	최저주거기준
	주택 편의시설(화장실, 부엌, 목욕탕)	통합변경	주거환경 불만족 사유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	통합변경	주거환경 불만족 사유	최저주거기준
	주거시설의 불편사항	변경	수리를 희망하는 곳(불편사항)	
	주택 수리 여부 및 수리 부분	변경	수리를 희망하는 곳(불편사항)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인용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 사유	인용		
	평소 사용하는 식수	서비스 조사		안전한 마실물
	난방시설 종류 및 취사용 연료	삭제		난방
	담장 형태	삭제		
	자가 주택 마련기간	삭제		
	주택 형태	삭제		
의료/보건 /건강증진	주관적 건강 상태	인용		
	건강관리방법	인용		
	만성 질병의 유무 및 질병명	인용		
	이용하는 의료기관(약국 포함)	인용		1차진료서비스 의약품 구입
	이용하는 이유	통합변경	지역외 의료기관 이용사유	
	의료기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통합변경	지역외 의료기관 이용사유	
	의료기관/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유	통합변경	지역외 의료기관 이용사유	
	의료기관 이용 빈도	추가		
	방문진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조사		순회방문(보건)
	방문진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유	서비스 조사		순회방문(보건)
	건강검진 주기	삭제		
	건강검진 받지 않는 이유	삭제		
	우울 및 소외감 정도	인용		
	흡연, 음주	삭제		

* 식품/식생활에 관련된 항목은 모두 삭제함

〈표 3-3〉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세부부문별 조사 항목(계속)

세부부문	조사항목	항목 조정		농어촌 서비스 기준 관련항목
사회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서비스 조사		노인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 및 불편사항	서비스 조사		청소년
	아동 시설 이용 여부 및 불편사항	서비스 조사		아동
	영유아 시설 이용 여부 및 불편사항	서비스 조사		영유아
	다문화가정 시설 이용 여부 및 불편사항	서비스 조사		다문화가족
	농촌주민을 위한 필요 복지서비스 및 정책	변경	희망하는 복지정책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복지정책	추가		
	일자리 창출 정책 참여의향 및 고려사항	추가		
	지역사회 복지 수준에 대한 만족도	삭제		
	노인복지시설 이용경험 및 만족도	삭제		
교육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삭제		
	정규교육시설/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인용		
	어린이와 청소년의 통학 수단	인용		유치원/초·중학교
	평생교육 이수여부	삭제		평생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삭제		평생교육
도로/교통	평생교육 개설 희망 프로그램	삭제		평생교육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인용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	통합변경	대중교통 불편한 점	대중교통운행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불만족 사유	통합변경	대중교통 불편한 점	대중교통운행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도보)	서비스 조사		대중교통운행
응급/안전	자동차 소유 여부	삭제		
	도난사고 경험	서비스 조사		도난방지
	화재 경험	서비스 조사		소방서비스
	범죄피해, 가정폭력 경험	서비스 조사		경찰서비스
정보/통신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에 대한 만족도	삭제		
	컴퓨터 보유 여부	변경	컴퓨터 사용 여부	
	컴퓨터 사용 빈도	추가		
	컴퓨터 사용 시간, 사용용도	인용		
	인터넷 상거래 여부	변경	농산물 판매방법	
	인터넷, 초고속망	서비스 조사		초고속망
	정보통신교육 경험 및 만족도	서비스 조사		평생교육
	이동전화	삭제		
	온라인 민원행정 서비스 이용 현황	삭제		

〈표 3-4〉 경제활동공간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세부부문별 조사 항목

세부부문	조사항목	항목 조정		농어촌 서비스 기준 관련항목
경제활동*	직업 활동의 유무 및 이유	인용		
	현 직업 종사년수	추가		
	평균 근로시간(농가 포함)	인용		
	은퇴 사유	인용		
	은퇴 시기 및 은퇴 전 직업	추가		
	직업만족도	변경	현 직업의 어려움과 해결방법	
	직업의 장래성	인용		
	부업 여부 및 종류	인용		
	부업에 투자하는 시간	추가		
	여성취업자 비율	변경	세대원 중 여성취업자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및 장애요인	인용		
농업활동/ 영농기반	재배 작목	인용		
	수확량, 판매량 및 판매액	인용		
	시설원예(농기수 면적)	인용		
	생산한 농산물 판매방법	인용		
	경지면적	통합변경	지목별 소유 농경지 면적	
	소유상태	통합변경	지목별 소유 농경지 면적	
	지목	통합변경	지목별 소유 농경지 면적	
	사육종 및 사육두수	인용		
	생산조직에의 참여	인용		
	보유 농기계 종류	인용		
	농기계 소유대수 및 사용빈도	삭제		
	농기계 구입년도 및 구입자금 마련	삭제		
	농기계 위탁/수탁 작업일수, 작업료	삭제		
	농기계 사고 경험	인용		
	비닐하우스 작업 증상	인용		
	농부중	인용		
	농약중독 경험	인용		
	농약관련 안전수칙 정보 취득 경로	삭제		
	농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불안감	인용		
	농지 임대차 관계 및 소작료	삭제		
	친환경농업(동기, 규모, 어려움)	삭제		
	축산시설 규모	삭제		
	경영경지, 차입경지, 임대경지	삭제		

※ 가사노동 관련 항목 모두 삭제

〈표 3-4〉 경제활동공간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세부부문별 조사 항목(계속)

세부부문	조사항목	항목 조정		농어촌 서비스 기준 관련항목
소득/지출	월평균 가구소득	인용		
	가구소득 출처	인용		
	농가소득 구성	인용		
	생활비조달방법	인용		
	생계보조수당 수급자 수 및 금액	변경	생계보조수당 수급 여부 및 적정성	
	노인의 수입원	통합변경	가구소득 출처	
	가입한 보험의 종류	삭제		
	소득 만족도	삭제		
	장래 소득에 대한 기대	삭제		
	월 평균 총 지출액	인용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통합변경	지출 비중 상위 5순위 항목	
	월 평균 지출내역 - 세금	통합변경	지출 비중 상위 5순위 항목	
	월 평균 지출내역 - 주택, 연료	통합변경	지출 비중 상위 5순위 항목	
	월 평균 지출내역 - 저축, 보험, 연금	통합변경	지출 비중 상위 5순위 항목	
	월 평균 지출내역 - 여가, 문화	통합변경	지출 비중 상위 5순위 항목	
	월 평균 지출내역 - 교양, 오락	통합변경	지출 비중 상위 5순위 항목	
	월 평균 지출내역 - 음식, 음료	통합변경	지출 비중 상위 5순위 항목	
	월 평균 지출내역 - 술, 담배	통합변경	지출 비중 상위 5순위 항목	
	월 평균 지출내역 - 의류	통합변경	지출 비중 상위 5순위 항목	
	월 평균 지출내역 - 가정용품	통합변경	지출 비중 상위 5순위 항목	
	월 평균 지출내역 - 건강	통합변경	지출 비중 상위 5순위 항목	
	월 평균 지출내역 - 교통, 정보, 통신	통합변경	지출 비중 상위 5순위 항목	
	월 평균 지출내역 - 교육	통합변경	지출 비중 상위 5순위 항목	
	저축 규모, 저축 형태, 용도	통합변경	노후 준비 방법	
	노후 준비 방법	인용		
	소비지출에 대한 만족도	삭제		
	소비지출시 정보 획득원	삭제		
	생필품 구매 장소	인용		
	시장 등 생필품 구입 편리성	삭제		
	상품 구입 시 선택 기준	삭제		
	상품피해와 대응방법	삭제		
	부채(금액, 용도, 상환가능성)	삭제		
	가계비관리자	삭제		
	신용카드 소유 개수 및 이용정도	삭제		

〈표 3-5〉 경관 및 환경공간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세부부문별 조사 항목

세부부문	조사항목	항목 조정		농어촌 서비스 기준 관련항목
문화/여가	평일의 여가시간	인용		
	여가시간 활용 및 활동(프로그램)	인용		
	TV 시청(시간, 즐겨보는 프로그램)	통합변경	여가시간 활용 및 활동(프로그램)	
	신문구독	통합변경	여가시간 활용 및 활동(프로그램)	
	여가시간을 보내는 공간	추가		
	연간 여행 일수 및 여행 형태	인용		
	여가활동 장애요인	인용		
	여가활동 비용	삭제		
	여가생활 만족도	삭제		
	희망 여가활동(프로그램)	삭제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 조사		독서
	도서관 이용 빈도 및 만족도	삭제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용 및 만족도	서비스 조사		찾아가는 문화공연
	공공여가시설 이용 및 만족도	서비스 조사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지역축제 참여와 만족도	삭제		
경관/환경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	인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인용		
	재활용품 처리	인용		
	폐비닐, 농약병 처리	인용		
	오폐수 처리	인용		오폐수처리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도(쾌적성)	인용		
	주관적 수질 오염도	인용		
	주관적 소음 오염도	인용		
	주관적 악취 오염도	인용		
	주관적 대기 오염도	인용		
	주관적 토양 오염도	인용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도	삭제		

이외에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 마을에 대한 평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항목은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응답자 개인과 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응답자 일반사항	주소, 성별, 연령
마을 거주	거주기간, 거주동기, 향후 이주계획 및 이주사유 귀농·귀촌시 어려움, 조력자, 도움 받은 사항
마을 평가	마을의 시급한 과제, 타 마을과 비교한 마을의 평가 과거와 비교한 마을의 변화, 향후 마을의 전망
사회적 관계	사회단체활동(협동조합, 생산자조직, 학습단체, 농업관련단체, 자원봉사, 종교단체, 시민단체, 정당, 지역개발사업추진위원회, 사회적 기업 등) 주민공동체 활동(마을공동회의, 마을청소, 마을행사, 마을단체)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 나누는 이야기
개인 기타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 어려울 때 도움 받는 곳 과거와 비교한 생활의 변화, 향후 생활의 변화 전망

3) 조사·분석방법

본 연구는 충남도내 농촌 마을 주민의 생활상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고, 특정 농촌 마을의 실태와 농촌 주민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농촌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시·군 단위 지역에 대한 거시적 조사·분석이 아닌 특정 마을(논산시 채운면 화정1리)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촌 마을의 실태 파악은 현장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장조사는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인지하고 각종 시설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현장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시설, 농업시설, 마을공동시설 등의 위치, 종류,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각 주택의 거주 유무를 통해 빈집 현황을 파악하였다. 상하수도, 대중교통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문화여가 등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관련 기관 방문 및 인터넷 정보 검색, 통계자료 검색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촌 주민들의 생활기반에 대한 인지와 서비스 수혜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농촌 주민의 생활상 조사는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전체 세대원에 대해 전수조사(단, 만 15세 이상)를 실시하여 각 개인의 삶이 농촌 마을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살펴보고, 농촌 주민

들의 생활상에 대해 추적하기 위해 계량적 조사 분석과 함께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기존 화정1리 조사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주민으로 확정하였다. 화정1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132명(전체 세대원 162명 중 비동거 세대원 30명 제외) 중 조사를 거부하거나 건강 등 개인적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주민을 제외하고 총 7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2011년 9월~10월 기간 동안 조사자가 해당마을을 방문하여 피조사자와 1:1 직접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는 SPSS Statics 19.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신뢰수준 95%, 허용 오차범위 $\pm 5\%$)과 심층면접조사 서술을 통한 주민 생활상 묘사의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지역의 개요

1) 일반 개요

화정리는 논산시 채운면에 속하는 법정리이며 행정구역은 화정1리와 화정2리로 구성되어 있다. 화정1리의 자연마을 명칭은 화정(化亭)으로 지명은 마을 뒷산에 큰 느티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고 주위에는 온통 꽃밭이 펼쳐져 있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원래 충청남도 은진군 노곡면에 속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동리, 음지리, 신촌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화정리라 하고 논산군 채운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3월 1일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면서 논산시 채운면에 속하게 되었다.

채운면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화정1리는 전 지역이 해발고도 20여m의 평야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평야 지대의 마을 도로를 중심으로 주택이 들어서 있는 집촌(集村)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마을의 총 면적(2008년 6월 기준)은 1.44km²이며, 경지 면적은 1.14km²로 밭 면적은 0.08km²이고 논 면적은 1.06km²이다. 주요 산업은 벼농사 위주의 농림업으로 평야지대의 전형적인 산업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마을 옆으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 25호선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지나가는데, 북서쪽으로는 채운면 삼거리, 남동쪽으로는 연무읍 신화리에 연결된다. 천안논산고속도로 25호선 상에는

연무IC가 설치되어 있다. 지방도 68호선이 남부에서 북서~남동 방향으로 지나는데, 북서와 남동쪽으로 모두 연무읍 신화리에 연결된다. 기타 도로는 마을과 연결한 화정2리 방향으로 나가면 23번 국도가 있고, 연무선 철도가 동부에서 북서~남동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그림 3-1〉 조사대상지역의 위치도

화정로를 따라 마을로 들어서면 2층 구조물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고 그 옆으로 운동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마을회관 인근에는 예서 화정교회라는 종교시설과 정자, 보호수, 비석, 농산물 집하장,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 외에 마을 동쪽에 철도길이 지나고 있으며 간이점터와 4개의 창고(농협, 개인, 업체 등)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시설로는 대규모 축사 1개소와 병아리 부화장 1개소가 있는데 부화장이 마을에 들어서기 전부터 현재까지 업주와 마을 주민간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마을 내에는 7개의 빈집과 3개의 빈터가 있는데 이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 정도에 따라 빈집의 관리상태가 상대적으로 달리 나타났으며, 빈터는 대부분 밭작물을 키우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림 3-2〉 조사대상지역의 주요 시설 위치도



〈그림 3-3〉 조사대상지역의 빈집·빈터 분포도

2) 인구구조의 변화

〈표 3-7〉 조사대상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년도	세대(가구)	인구(명)			세대당 평균 세대원수(명/가구)
		계	남	여	
2011	66	162			2.4
2009	64	154	68	86	2.4
2005	64	169	71	98	2.6
2000	68	215	101	114	3.2
1995	86	271	128	143	3.2
1990	73	251	124	127	3.4
1985	89	373	195	178	4.2
1980	90	505	253	252	5.6

※ 자료 : 논산시 통계연보, 1981-2010

※ 자료 : 채운면사무소 내부자료, 2011년 (8월 기준)

화정1리의 인구구성과 그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 화정1리의 인구는 90가구에 505명이 거주하고, 세대당 평균 세대원수는 무려 약 5.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5년 화정1리 인구는 89가구 373명으로, 그리고 1990년에는 73가구 251명으로 10년 동안 인구수가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후로도 화정1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 8월을 기준으로 162명, 1980년 대비 32%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세대당 평균 세대원수는 약 2.4명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80년 이후 화정1리 인구의 68%인 343명이 화정1리를 떠났거나 사망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통계에 근거한 이러한 수치는 실제와 차이가 있다. 2011년 9월 실제조사에 의하면 화정1리는 주민등록상의 수치보다 훨씬 적은 전체 62가구에 13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제 거주인구가 달리 나타나는 원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화정1리에 남겨두고 실제 외지에 나가 거주하는 비동거 세대원의 영향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 비동거 세대원 수는 30명에 달한다. 비동거 세대원들은 주로 교육 또는 직업에 의해 인근의 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화정1리의 인구감소에 비해 세대수의 변화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1980년대비 2011년 인구수는 68%인 343명이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90가구에서 66가구로 약 2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가족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1면만이 거주해도 1가구로 집계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 충남 농촌 주민의 생활상 분석

1. 농촌 주민의 서비스 수혜 실태

1) 주거 부문

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크다. 현재 논산시는 취암동과 부창동에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읍·면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화정1리를 포함한 논산 시내 읍·면 지역은 사실상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우므로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정책 추진이 장려되는데 논산시의 경우 현재 태양열 보일러, 태양광 보일러,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원하고 있다. 태양열/태양광 보일러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하고 예산 범위(1억 원) 내에서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다. 목재펠릿 보일러는 국고보조사업(산림청)으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대원 수, 재산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1년에 20대씩 지원해 주고 있다. 향후 농어촌 지역 주민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을공동시설 운영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일반운영비 및 난방비를 개소당 연간 172만원을 지원해 주는 수준이다. 시설운영상 부족한 금액은 마을 주민들의 모금액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공동시설에서 상설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채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4개 프로그램(노래교실, 풍물교실, 국선도교실, 웰빙댄스)을 주 2회 2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는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달라지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산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72%이고 채운면의 상수도 보급률은 73%로 서비스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이지만 조사마을인 화정1리는 현재 마을 전체가 지방상수도를 통해 상수를 공급받고 있다(수원지 : 대청댐). 원수 수질검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고 있고 먹는 물 수질

검사는 논산시에서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안전한 마실 물’ 항목의 서비스 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 주거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관련항목	서비스 내용	기준	실태	
거주가능주택	최저주거기준 ¹⁾ 이상 주택 비율	90% 이상		
난방	도시가스 보급률(읍 지역)	50% 이상	22.8%(논산시) ²⁾ 0%(채운면)	하
	난방비 저감정책 ³⁾		목재펠릿 보일러(20대) 태양열/태양광 보일러(1억)	중
공동시설 프로그램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일반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개소당 1,720,000원/년)	상중
	상설 프로그램 운영		마을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없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됨 (4개 프로그램, 주2회 운영)	중하
안전한 마실 물	상수도 보급률(면 지역)	75% 이상	72%(논산시) 73%(채운면) 100%(화정1리)	상
	원수 수질검사		수자원공사 실시	상
	먹는 물 수질검사, 수질 유지		논산시 실시(3개월마다)	상
오폐수처리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47.66%(논산시) 0.10%(채운면) - (화정1리)	하

1) 부엌·화장실·목욕시설 구비,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방열 및 방습, 채광·난방, 소음·악취, 대기오염 환경기준 등을 최저주거기준으로 하므로 마을·읍·면·시·군 단위에서의 조사가 사실상 어려움

2) 주민등록상 세대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수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원룸 거주자 등)

3)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확대 등을 난방비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기준에 반영

※ 자료 : 논산시 통계연보 2010, 논산시 내부자료(2011년 기준)

논산시 내에는 논산, 강경, 연무의 3개 하수처리장이 있고 채운면 일부가 해당시설을 통해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화정1리는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에 해당되지 않으며 마을 자체적인 하수처리시설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생활폐수 등에 의한 마을의 하천, 토양, 지하수 등의 오염이 염려되므로 오폐수 처리능력 및 환경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교통 부문

화정1리는 마을 내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화정1리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 노선도 운영되고 있다. 총 4개 노선버스가 마을을 통과하는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거나(1-2번 버스)와 하루 3회(104, 708번 버스) 또는 하루 6회(102번 버스) 운행되어 타 먼 단위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운행 빈도는 비교적 잦은 편이다. 또한 현재 논산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준공공교통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어촌 지역은 이동차량이 적어 과속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도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화정1리 또한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요구된다.

〈표 4-2〉 교통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관련항목	서비스 내용	기준	실태	
대중교통 운행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15분 이내(도보)	10분 이내(도보)	상
	대중교통 운행횟수	3회 이상/일	4개 노선 운행 하루 3회 ~ 10분 간격	상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프로그램 ¹⁾		-	
여객선 운행	도서지역 여객선 운행	왕복 1회 이상/일	(해당 없음)	
	도서주민 여객선 운임 일부지원		(해당 없음)	
인도 설치	차도와 구분된 인도 확보		인도 없음	하

1)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프로그램 : 콜택시 비용지원, 탄력적 버스운영 등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적용)

※ 자료 : 현지조사, 네이버 교통 정보, 논산시 내부자료(2011년 기준)

3) 교육 부문

〈표 4-3〉 교육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관련항목	서비스 내용	기준	실태	
유치원/ 초·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읍·면)		유치원 2곳(원아9, 교원2) 초등학교 2곳(학생93, 교원22) 중학교 없음	중하
	통학수단 제공		해당마을 학군 중학교는 통학수단을 제공하지 않음	하
고등학교	우수 고등학교 육성(시·군)	1개교 이상	건양고등학교(사립) 2009년 선정	상중
폐교요건	폐교 재활용에 대한 의견수렴		(서비스기준 마련 이후 폐교 없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¹⁾ 참여율	70% 이상	이화초등학교 : 163명 참여 (1명당 4.8개 프로그램 참여) 강경중학교 참여율 : 97% (236명중 229명 참여)	상
교육발전 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설치(시·군)		논산시 교육발전위원회	상중
평생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거점시설 ²⁾	1개 이상(읍·면)	채운면 주민자치센터	상중

1)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2)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 자료 : 논산시 관련기관(교육청, 농업기술센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홈페이지, 논산시 통계연보 2010

현재 채운면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각각 2개소씩 있으나(타 마을에 소재) 중학교는 없는 실정이다. 화정1리의 학생들은 이화초등학교와 강경읍에 소재한 중학교를 학군으로 하는데 이화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38명으로 소규모 학급에 속하며 강경읍에 소재한 강경(여자)중학교는 현재 통학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학교 설립 또는 통학수단 제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산시 양촌면에 소재한 건양고등학교(사립)는 2009년 기숙형 고교로 선정(교육과학기술부)되었다. 농어촌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등이 지속되어야 한다.

화정1리의 학군에 속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초등학교는 학력증진, 특기적성, 평생교육 분야의 총 9개 프로그램 17개 학급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강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연간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163명으로 전교생 1인당 평균 4.8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학생 참여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강경중학교는 주요 5개 과목에 대한 교과반과 특기적성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기간동안 영어 및 독서논술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전교생 236명중 229명이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여 97%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경여자중학교 또한 주요과목에 대한 수준별 교육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공부방과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습능력 신장 및 학습태도 개선, 재능 계발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농어촌 지역 학교의 방과후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재능 계발, 자신감 상승 등의 효과를 발휘하고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상승 및 사교육비 경감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성과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논산시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장학사업 등 교육투자를 위한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요구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읍·면 단위 서비스 거점시설은 채운면 주민자치센터 1개소 뿐이며 주로 취미 관련 프로그램(노래교실, 풍물교실, 국선도교실, 웰빙댄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등이 요구된다. 이외에 논산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요리, 생활 공예, 컴퓨터 등)와 논산시청(주민컴퓨터교육), 논산시 문화예술회관(논산 아카데미 강좌),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논산시 소재) 등이 있다.

4) 보건의료 부문

〈표 4-4〉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관련항목	서비스 내용	기준	실태	
1차 진료 서비스	중요과목 ¹⁾ 의사 진료(시·군)		논산시보건소 - 내과, 한방, 물리치료 의사 9명 채운보건지소 - 내과, 한방 공중보건의 2명 채운우기보건진료소 - 간호사(1차보건의료, 교육)	상
순회방문	보건소 등의 마을 순회방문	1회 이상/월	평균 월 1회 방문 필요에 따라 주 1회 방문	상
의약품구입	일반의약품 구입	20분내(자동차)	채운면 내 약국 2개소 인근 강경읍 내 약국 16개소	상

1) 중요과목 :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 자료 : 논산시 보건소 홈페이지, 채운보건지소·우기보건진료소 내부자료

공공의료서비스(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화정1리 주민은 면사무소 내에 소재한 채운보건지소와 인근 마을에 소재한 채운우기보건진료소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자동차로 6분 소요). 채운우기보건진료소는 주로 1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채운보건지소에는 내과와 한방 과목 공중보건의가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논산시 보건소에서는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치과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해당마을 주민들은 중요 진료과목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순회방문서비스는 화정1리 관할인 채운우기보건진료소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평균 월 1회 마을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필요에 따라서는 주 1회 방문하기도 함). 주로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마을회관에서 순회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의료 관련 상담, 홍보,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정1리 마을 내에는 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곳이 없으나 인근 마을(채운면 삼거리, 용화리)에 약국이 2개소 있고, 마을과 근거리에 있는 강경읍(자동차로 약 15분 소요)에 16개의 약국이

있어 의약품구입 서비스 수혜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복지 부문

논산시 내에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2개소(죽림노인복지센터, 논산지역자활센터)가 있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이 주 1-3회 정도(어르신 상태에 따라 달라짐)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산시에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가 있으며 화정1리에서의 거리는 자동차로 20분 이내이다. 논산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외국어, 역사, 논술, 토론, 취미, 문화 등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과 방과 후 아카데미, 체험활동, 국제성취포상제(에든버러포상제) 등이 있다. 그러나 채운면 관할의 청소년센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정1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채운면 내에서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이화초등학교 1개이며 아직 지역아동센터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이화초등학교의 전교생(38명)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고학년과 저학년을 나누어 진행된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기초학력교실, 돌봄 캠프, 영어캠프, 사물놀이, 피아노, 종합미술프로그램, 도서캠프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 논산시에는 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강경읍(1개소), 연무읍(3개소), 논산시내(3개소)에 있으며, 원어민 영어 수업, 한자 지도, 미술치료, 독서지도, 체험 및 견학활동 등의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채운면에 소재한 영유아 보육시설로는 민간 보육시설인 우리어린이집(자동차로 16분 소요)과 이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자동차로 6분 소요), 채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자동차로 11분 소요)이 있다. 또한 인근 읍·면지역인 강경읍과 연무읍에 총 20곳의 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어 화정1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은 양호한 편이다. 화정1리에서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은 이화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1983년 인가시설)으로 현재 4명의 유치원생이 등록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5-7세까지의 유아를 받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3세 아동부터 받아들이고 있다. 기본적인 보육프로그램과 함께 피아노, 영어, 미술, 클레이, 언어 학습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자녀에 대해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비, 간식비, 교재비, 강사료도 무료이다.

〈표 4-5〉 사회복지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관련항목	서비스 내용	기준	실태	
노 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회 이상/주	주 1-3회 방문 (어르신 상태에 따라 다름)	상
청소년	청소년센터	30분내(자동차)	논산시청소년수련관 (20분이내)	상중
아 동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	20분내(자동차)	이화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논산시 전체 지역아동센터 7곳	상중
영유아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20분내(자동차)	우리어린이집(채운면) 채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상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서비스 거점시설	30분내(자동차)	논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분 이내)	상중

※ 자료 :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2011년 기준)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지정·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으로는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다. 화정1리에서 자동차로 25분 거리에 있는 이 센터는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 한국문화, 다문화사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사회나 역사, 생활뿐만 아니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부부교육, 시부모교육, 배우자 교육, 자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 상담이나 개인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 컴퓨터·정보화교육, 다문화강사양성교육, 통·번역사 양성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강사 파견 및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자체적인 방문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사단)충남다문화가정협회 논산시지회(자동차로 25분 소요)와 민들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자동차로 30분 소요)가 있다.

6) 응급 부문

화정1리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6분이며(대기 차량이 없을 경우 최대 10분 소요), 응급환자를 마을에서 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은 약 15분 정도로 응급서비스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급의료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전용헬기는 충남소방안전본부에서 1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정1리는 강경소방대 관할지역으로(인근 강경읍 소재), 화재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마을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6분이며 대기 차량이 없을 경우 최대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운면사무소 내에 채운의용소방대가 있으나 소방차량은 없는 상태로 화재진압 등 실질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화정1리로의 경찰 출동은 연무지구대 관할이며 마을까지 4분이 소요되어 경찰서비스 부문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마을은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대가 마을 내 또는 해당 면에 소재하고 있지 않으나 인근 강경읍 또는 연무읍과의 접근성이 좋아 응급 부문에 속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항목에서 양호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응급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관련항목	서비스 내용	기준	실태	
응급서비스	구급차 도착 및 응급처치	30분 이내	도착 5-6분 소요(최대 10분) 응급환자 이송 약 15분 소요 (마을에서 백제병원까지)	상
도서·벽지 서비스	헬기·선박 환자 이송체계		충남소방안전본부 1대 구축	상
소방서비스	5분 내 소방차 도착 비율	55% 이상	강경소방대 관할 5-6분 소요(최대 10분)	상
도난방지	주요간선도로 방범용 CCTV설치		(자료 획득 불가)	
경찰서비스	5분 내 현장 도착 비율	90% 이상	연무지구대 출동 4분 소요(최대 7-8분)	상

※ 자료 : 관련기관 내부자료(2011년 기준)

7) 문화여가 부문

〈표 4-7〉 문화여가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관련항목	서비스 내용	기준	실태	비고
독서	도서 열람 및 대출 ¹⁾ (읍·면)		야화1리 작은 도서관 (열람 및 대출 가능)	상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시설까지 거리	30분내(자동차)	논산문화예술회관, 논산문화원 (25분 이내) 해송공예전시체험관(20분 이내)	상
	문화 프로그램 개최	1회 이상/月	공연 5.4회/월 전시 1회/월 영화상영7회/년	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개최	1회 이상/분기	분기별 평균 3.7회 (논산문화예술회관)	상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2회 이상/年	(자료 없음)	

- 1) 도서 열람 시설종류 :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동도서관 및 지역 청소년/아동센터, 농수축협 협조
 도서 전달 서비스 : 우체국 인터넷망 또는 택배 서비스를 활용한 주민 대출 도서 전달 및 회수 시스템
 ※ 관련기관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2011년 기준)

채운면 내에서 도서 열람이 가능한 시설로는 채운면 야화1리에 소재한 작은 도서관이 있다. 야화1리 작은 도서관은 약 2천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채운면 주민이라면 누구나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이외에 인근 읍·면지역에 강경도서관과 연무도서관이 있고 도서 열람 및 대출은 가능하나 대출도서 전달 및 회수 시스템은 없는 상태다.

문화시설로는 논산시내에 소재한 논산문화예술회관과 논산문화원(자동차로 25분 소요)과 해송공예전시체험관(자동차로 20분 소요, 은진면 소재)이 있다.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11년 기준 월 평균 5.4회의 공연과 전시, 년 7건의 영화상영이 진행되었으며 공연은 매월 3~7회 정도의 크고 작은 공연이 이루어졌다(3월 제외). 이 중 전문 공연 프로그램은 2011년 총 15건이 개최되어 분기별로 3.7회 추진되었다. 논산문화원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을 2011년 2건 추진하였다(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비 지원).

8) 정보통신 부문

현재 충남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초고속망·광대역 구축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0~2014년까지 190개 마을에 대한 시설 기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군에서 관련 시설기반 구축을 필요로 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충남도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산시는 2011년까지 16개 마을(리 단위)의 기반 구축이 완료되었고 2012년 12개 마을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화정1리는 아직까지 서비스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표 4-8〉 정보통신 부문 서비스 수혜 실태 분석결과

관련항목	서비스 내용	기준	실태	비고
초고속망	초고속망 접속		화정리 초고속망 기반시설 미구축	하
	IPTV 시청	80% 이상	화정리 광대역 통합망 기반시설 미구축	하

※ 자료 : 관련기관 내부자료

2. 농촌 주민의 생활상 분석

1) 삶터에서의 주민 생활상

화정1리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 조사에 응해준 75명을 대상으로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표 4-9>와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자 중 60세 이상이 44명으로 전체의 58.6%를 점하고 있고, 이 중에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10명(13.3%)이 있어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50세 미만의 청장년층은 15명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력 수급의 문제가 예상되며 향후 새로운 인구 유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을의 지속성에 대한 과제가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의 수가 약간 많았는데 이는 여자의 생존율이 남자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는 할머니들이 비교적 많았다.

〈표 4-9〉 연령별 인구현황

연령	빈도(명)	비율(%)
20세 미만	1	1.3
20~30세 미만	2	2.7
30~40세 미만	5	6.7
40~50세 미만	7	9.3
50~60세 미만	16	21.3
60~70세 미만	13	17.3
70~80세 미만	21	28.0
80세 이상	10	13.3
합계	75	100.0

내가 올해 82살인데 이리로 시집오면서부터 살았으니까 이 마을에 산지 벌써 59년이나 됐네. 그런데 남편은 20년 전에 먼저 가버려서 여태 혼자 살고 있어.

- 홍00 씨(82세) 인터뷰 중에서

화정1리에 거주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50~60년 미만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이 15명(20.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50년 미만이 13명(17.3%), 30~40년 미만이 12명(16.0%), 20~30년 미만이 11명(14.7%)으로 조사되었다. 60년 이상 장기간동안 마을에서 거주한 사람 또한 15명(20.0%)이나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을에 5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마을에 정착한 이후 상당히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마을에 들어온 20년 미만 거주자는 12%(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마을 거주기간

거주기간	빈도(명)	비율(%)
10년 미만	3	4.0
10~20년 미만	6	8.0
20~30년 미만	11	14.7
30~40년 미만	12	16.0
40~50년 미만	13	17.3
50~60년 미만	15	20.0
60~70년 미만	6	8.0
70~80년 미만	5	6.7
80년 이상	4	5.3
합계	75	100.0

이 마을에 거주하게 된 동기로는 결혼에 대한 응답자가 33명(44.0%)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20~30세 사이에 결혼을 하면서 마을로 들어와 살게 된 여성 노인의 경우이며 이 조사결과에 비춰 볼 때 이들의 수가 화정1리 주민 구성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고향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25명(33.3%)으로 나타나 이곳에서 태어나 마을을 떠나지 않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수 또한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귀농·귀촌자가 8명으로 10.7%를 차지하였고, 그 외 직장이나 사업, 경제적 사정, 기타(목회활동, 농사확대, 개인적 가정사 등) 사유로 이 마을에 거주한 주민이 9명(12%)이다.

〈표 4-11〉 마을에 거주하게 된 동기

거주동기	빈도(명)	비율(%)
고향	25	33.3
직장, 사업	2	2.7
경제적 사정	2	2.7
귀농, 귀촌	8	10.7
결혼	33	44.0
기타*	5	6.7
합계	75	100.0

*기타 : 가족이사, 목회활동, 농사확대, 어릴 적 이사, 혼자 사는 처지가 되어서 각 1명

귀농·귀촌자 중 절반(4명)은 마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측면, 영농활동, 마을의 열악한 인프라, 농촌 환경에의 적응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마을에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하였는데 이들은 농촌(다른 마을)에서 지낸 경험이 있거나 농사일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 정착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뜻을 따라 30년 전 이 마을에 들어와 살았어요.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농사짓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 화정리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마을회관의 어르신 분들을 위해 밥을 지어주는 일을 하면서 주변 이웃들과도 원활하게 지내고 있어요.

- 조OO 씨(71세) 인터뷰 중에서

그러나 귀농·귀촌자 중 소수지만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통체계나 농촌이라는 낯선 곳의 환경 적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또한 귀농·귀촌 당시 마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으며 도움을 받더라도 친구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원래 내가 살던 곳은 서울 의정부야. 그래서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와 살 때는 힘들었는데 무엇보다 교통이 제일 불편했어.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한참 버스를 기다리고, 그 땐 여기 집하장*까지 버스도 안 왔어. 마을 골목길도 여간 복잡해서 처음에는 길도 잃어버리고 그랬지. 그 땐, 참고 살았는데……. 여기 오기 전에는 남편이 2년 살고 떠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농촌마을로 왔었어. 근데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그러다보니 결국은 체념하고 살았지. 그게 이십 몇 년이 된 거야……. 여기가 삶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이젠 다른데도 못 가.

- 선00 씨(51세) 인터뷰 중에서

* 현재 마을을 경유하는 버스 중 마을내 집하장을 종점으로 하는 버스 노선이 있음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화정교회의 목사로 발령받자 같이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교회에서 준 사택이죠……. 여기서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 말고는……. 살다보니 넓고, 여유롭고. 여기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요. 사람들이 연세가 많아 여러 세상 풍파를 헤쳐왔기 때문에 다들 너그럽고 타인을 잘 이해해주세요. 남의 험담도 하지 않아서 목회활동도 하기 편해요……. 정착 과정에서 교회 사람들이 도움 많이 줬죠. 채소와 같은 것도 잘 챙겨주시고. 여기 농사짓고 계시기 때문에 먹을 걸 수시로 주세요.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까봐 겁이 나요.

- 곽00 씨(53세) 인터뷰 중에서

이상과 같이 귀농·귀촌자들은 과거 자신의 생활환경이나 개인적 상황 또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농촌 마을에서의 생활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정도가 달리 나타났으며, 마을로의 정착과정에서 체계적인 도움이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다른 곳으로의 이주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65명, 86.7%)는 이주계획이 없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10명(13.3%)은 이주계획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주 계획이 있는 10명의 응답자가 이주하려고 하는 사유로는 생활환경(3명), 자녀교육(3명), 문화생활(2명), 소득 또는 취업(각 1명)이 언급되었다.

〈표 4-12〉 향후 이주하려는 이유

이주이유	빈도(명)	비율(%)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3	30.0
자녀 교육을 위해	3	30.0
소득이적어서	1	10.0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어서	2	20.0
기타(취업 후 이주할 계획임)	1	10.0
합계	10	100.0

※ 향후 이주계획이 있는 사람(10명)에 한함

화정1리 주민들의 주택 소유형태를 조사한 결과, 자가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71명, 94.7%)이었으며 나머지 응답자는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2명(2.7%), 교회사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1명(2.7%), 빈집에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가 1명(2.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가 주택 소유자 71명의 주택마련방법은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집을 소유하게 된 응답자가 32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을 통해 집을 마련한 응답자는 19명(26.8%)이었다. 이 외에 부모나 친척의 보조(7명, 9.9%), 융자나 사채(5명, 7.0%), 재산 매각(4명, 5.6%) 등이 있었다.

〈표 4-13〉 자가 주택 소유자의 주택마련방법

자가 주택 마련방법	빈도(명)	비율(%)
증여 및 상속	32	45.1
부모, 친척 보조	7	9.9
저축	19	26.8
융자 및 사채	5	7.0
퇴직금보상금	1	1.4
재산 매각	4	5.6
기타(자녀 원조, 종친 땅 사용)	3	4.2
합계	71	100.0

※ 자가 주택 소지자 71명에 한함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집을 마련하게 된 주민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해당마을이 고향이거나 수십 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집을 물려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경우 도시 거주자에 비해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주거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65.3%(매우 만족 29.3% + 약간 만족 36.0%)이고,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13.3%(매우 불만족 4.0% + 약간 불만족 9.3%)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주거 환경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집이 오래되어 노후화된 사유가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한 열악한 구조 및 시설이 주거환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외에 난방, 악취, 천장 등이 불만족 사유로 제기되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의한 실태 조사 결과 현재 논산시 내 읍·면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정1리와 같은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큰 것이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4-14〉 주거 환경 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22	29.3
약간 만족	27	36.0
보통	16	21.3
약간 불만족	7	9.3
매우 불만족	3	4.0
합계	75	100.0

추우니까 이리 옥매트 위로 올라와 앉아. (중략) 추워도 기름 값이 워낙 비싸서 마
음 놓고 댈 수가 있어야 말이지. 명절 때 애들 모일 때나 조금 쓰지……. 아주 돈 잡
아먹는 귀신이야…….

- 김00 씨(80세) 인터뷰 중에서

현재 주택 시설 중 불편하여 우선적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 ‘딱히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64명, 81.3%)이었고, 수리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명) 또는 난방시설, 화장실, 욕실 등 개인 주택상황에 따라 희망 수리부분이 달리 나타났다.

〈표 4-15〉 주택 우선 수리 희망부분

주택 우선 수리부분	빈도(명)	비율(%)
없음	61	81.3
전체적으로	3	4.0
난방시설	2	2.7
화장실	2	2.7
욕실	2	2.7
방	1	1.3
상하수도	1	1.3
도배	1	1.3
지붕	1	1.3
기타(냄새 제거)	1	1.3
합계	75	100.0

종합해 볼 때, 수리가 필요한 주택 시설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65.3%로 농촌진흥청의 “농촌지표” 조사 보고서에서의 주거환경 만족도 50.8%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새로운 유형의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주거·생활환경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현재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환경은 그들의 상황과 시선에서 볼 때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내가 사는 꼴이 이래. 집이 우습지? 그래도 나는 행복해. 집이 이렇게 낡고 작아도 나는 우리 집이 있어서 편히 발 뻗고 잠 잘 곳이라도 있지. 서울 같은데 가봐. 오갈 데도 없어서 길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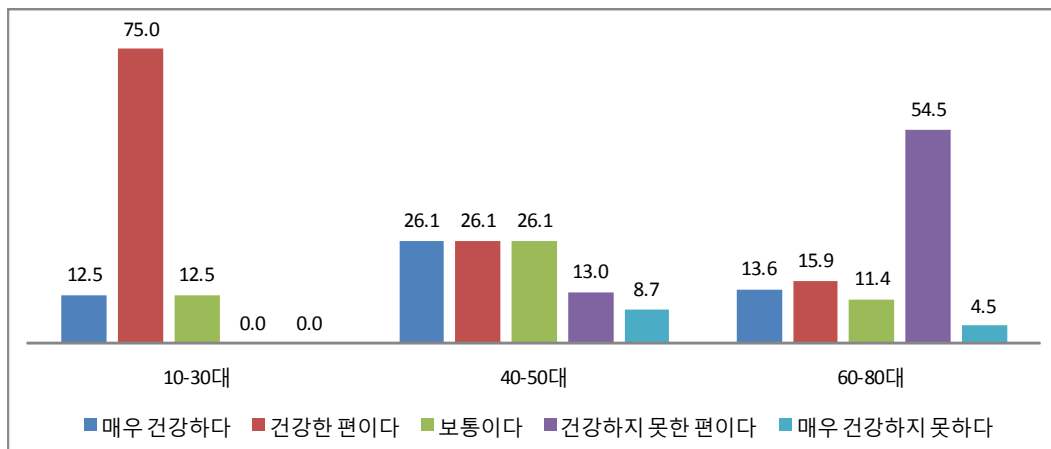
- 이00 씨(72세) 인터뷰 중에서

농촌 주민들의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2.6%(매우 건강하다 17.3% + 건강한 편이다 25.3%)이었다. 한편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1.3%(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5.3% +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36.0%)로 서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표 4-16〉 주관적 건강상태

구분		(전체)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전체		75 (100.0)	13 (17.3)	19 (25.3)	12 (16.0)	27 (36.0)	4 (5.3)
연령별	10-30대	8	1 (12.5)	6 (75.0)	1 (12.5)	0 (0.0)	0 (0.0)
	40-50대	23	6 (26.1)	6 (26.1)	6 (26.1)	3 (13.0)	2 (8.7)
	60-80대	44	6 (13.6)	7 (15.9)	5 (11.4)	24 (54.5)	2 (4.5)



〈그림 4-1〉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연령별 경향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견해는 연령에 따라 경향이 달리 나타났는데 10-30대의 젊은 층에서는 모두 건강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는 반면 40-50대에서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약 20% 정도 차지하였고 60-80대에서는 절반을 넘는 약 60%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고 연령층일수록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농촌지역의 노령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농촌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의료보건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질환 종류를 조사한 결과 목, 허리 등의 디스크 질환이 2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순으로 무릎 관절 질환이 26.1%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관절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들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평생 육체적 노동을 한 사유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나이가 들에 따라 주로 나타나게 되는 혈압(13명, 18.8%)이나 당뇨(8명, 11.6%)와 같은 질병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7〉 개인의 질환 종류

질환	빈도(명)	비율(%)
혈압	13	18.8
당뇨	8	11.6
무릎 관절	18	26.1
목, 허리 등 디스크 질환	20	29.0
심장질환	3	4.3
신장질환	1	1.4
위장병	3	4.3
시력질환	3	4.3
합계	69	100.0

※ 해당자에 한함(복수응답)

평소 몸이 아플 때 대처방법으로는 69명(92.0%)이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답하였고 의료기관 이용 없이 집에서 쉬다고 대답한 사람은 6명(8.0%)이었다.

몸이 아플 때 이용하는 의료 기관은 일반 ‘병의원’이 69.7%(53명)로 가장 높았고, 한의원, 종합병원, 보건소는 10% 내외 수준에서 서로 비슷한 이용비율을 보였다.

〈표 4-18〉 의료기관 이용 현황

이용하는 의료기관	빈도(명)	비율(%)
보건소(진료소)	6	7.9
병의원	53	69.7
한의원	9	11.8
종합병원	8	10.5
합계	76	100.0

※ 해당자에 한함(복수응답)

논산시의 의료기관이 아닌 타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낮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4명(30.8%)이었으며, 다음으로 의료시설 부족(3명)과 의료시설 낙후(2명), 의료진 부족(1명)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 외에 자녀의 권유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

〈표 4-19〉 지역 외 의료기관 이용 사유

지역 외 의료기관 이용 사유	빈도(명)	비율(%)
잘 낮지 않음	4	30.8
의료시설 부족	3	23.1
의료기술 낙후	2	15.4
기타	2	15.4
의료진 부족	1	7.7
자녀 권유	1	7.7
합계	13	100.0

※ 해당자에 한함(복수응답)

화정1리 주민들은 지역 내 의료기관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질병 종류와 병세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도 실제 그리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병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것 또한 의료기관의 기술이나 의료진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 자체가 완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은 속아서 가는 곳이며. 만날 들락거린다고 늙어서 걸린 병을 낫게 하겠어?
그냥 그 때 잠깐 덜 아플라고, 조금 괜찮아질라고 가는 것이지…….

- 김00 씨(78세) 인터뷰 중에서

의료기관 이용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험이 있는 주민은 1명(2011년 여름, 10일간 입원) 뿐이었다. 통원치료를 받는 빈도에 대한 조사결과 가끔 꼭 필요할 때만 부정기적으로 가는 응답자가 26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주민은 '1달에 1-2번' 또는 '1주에 1-2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각각 21.7%(15명)이었으며 이 외에 자신의 병세에 따라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4-20〉 의료기관에의 통원치료 빈도

통원치료 빈도	빈도(명)	비율(%)
가끔 꼭 필요할 때만	26	37.7
1년에 1-2번	2	2.9
1년에 3-6번	5	7.2
1달에 1-2번	15	21.7
1주에 1-2번	15	21.7
1주에 3-4번	5	7.2
매일	1	1.4
합계	69	100.0

※ 이플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총 69명)에 한함

작년(2010년)에는 허리디스크 때문에 크게 수술을 했지. 건양대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지금도 1달에 1번씩 수술한 거 때문에 병원에 가고 그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데 그냥 아파도 참아야지 어찌겠어. 평상시는 항상 허리보호대 차고 있고 걸어 다닐 때는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래. 그래도 아파도 안 쉬어. 텃밭도 보고, 인부들 불러서 일하는 것도 보고 혀.

- 오OO 씨(76세) 인터뷰 중에서

지금 당뇨와 혈압 부정맥 때문에 고생이야. 그거 때문에 하루에 먹는 약도 8가지야……. 뭐 다니는 병원이야 보자, 논산 현대병원, 천안의 순천안대학병원, 대전 우리 병원에 다니고 있지……. 몸이 건강할 때는 하우스 집에 다녔는데 거기서 4~5만원씩 받았었어. 거기서 상추와 토마토 경작하는 데, 이제는 몸이 이래서 일을 전혀 하지 못해. 여기(마을회관)에서 매일 와서 시간 보내지. 걷는 것이 불편해서 댄 데도 못 가. 병원으로 갈 일 있으면 애들이 와서 데리고 태워줘.

- 백OO 씨(75세) 인터뷰 중에서

안 아픈데 빼고는 다 아파. 그냥 입만 성해. 예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작년(2010년)에 논산 백제 병원에 입원도 했었어. 뼈마디 곳곳이 쑤셔서 저기 현대 병원에도 자주 갔었어. 한 달에 1번 가는데 병원비가 본래는 6천원이야. 근데 그 영세민이라서 1,500원만 냈었지. 여기서 만날 만나는 사람들은 저기 조씨(조OO 씨), 그리고 우리 집 앞에 텃밭 있어서 매일 봐 오씨(오OO 씨). 평소에는 그냥 노인 회관에 나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며 지내지. 달리 하는 일이라고는 교회 나가는 거뿐이야.

- 박OO 씨(79세) 인터뷰 중에서

농촌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생겨난 관절기계 질환 또는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된 당뇨나 혈압 등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질환으로 인해 이제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병원에 다녀오거나, 마을회관에 모여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하는 등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농촌 노인들은 하루의 삶 자체가 너무도 단순하게 변해

버렸고 그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과 해결책은 실상 월 10만원 이내의 노령연금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펼치고 있는 복지 분야 정책에 대하여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응답자는 총 42명이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었다(29명, 69.0%).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재산과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화정1리 주민 중 고령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외 철도운임할인이나 세제혜택을 받는 사람도 소수가 있었다. 향후 혜택 대상이 되기를 희망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철도운임할인, 세제혜택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21〉 충청남도 복지 정책의 혜택 또는 희망 여부

복지정책	혜택대상	(비율)	희망정책	(비율)
여성긴급전화	0	0.0	1	5.9
여성회관	2	4.8	0	.0
다문화가족	1	2.4	0	.0
기초노령연금제도	29	69.0	5	29.4
철도운임할인	4	9.5	3	17.6
세제혜택	2	4.8	2	11.8
부모봉양자주택우선권	1	2.4	1	5.9
재가노인복지방문	1	2.4	1	5.9
재가노인복지봉사원파견	1	2.4	1	5.9
노인복지시설	1	2.4	1	5.9
장애인복지시설	0	0.0	1	5.9
정신요양시설	0	0.0	1	5.9
합계	42	100.0	17	100.0

※ 각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함

농촌 주민들의 교통/통신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55명, 73.3%)이 불편한 점이 없다고 답하였다. 불편한 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운행횟수나 배차간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한 경우가 7명(9.3%)이었으며, 이 외 교통노선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명(2.7%)이었다. 기타 불편 사항으로는 노약자, 장애인 등 본인의 건강상태 때문에 승하차시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승하차시 교통약자를 돕기 위한 시설을 마련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2〉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한 점

대중교통 불편한 점	빈도(명)	비율(%)
불편한 점 없음	55	73.3
교통수단 노후	1	1.3
친절도	1	1.3
교통노선	2	2.7
횟수, 배차간격	7	9.3
기타	9	12.0
합계	75	100.0

조사대상자 중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75명 중 17명으로 2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4-23〉 컴퓨터 사용 빈도

컴퓨터 사용 빈도	빈도(명)	비율(%)
거의 매일	11	64.7
1주에 1-2회	6	35.3
1달에 2-3회	0	.0
거의 안 씀	0	.0
합계	17	100.0

※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17명에 한함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17명 중 컴퓨터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11명(64.7%)이고, 1주에 1-2회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6명(35.3%)으로 나타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비교적 빈번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컴퓨터의 사용시간은 1시간 정도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이 11명(64.7%)으로 가장 많았으며, 2시간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이 3명으로 대부분 1~2시간 정도만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컴퓨터 활용용도는 게임·오락이 5명(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용 응용프로그램 사용, 영농에 필요한 정보 수집, 인터넷 동호회 활동, 전자 상거래가 각각 4명씩(각 17.4%) 나타나 컴퓨터를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4〉 컴퓨터 사용 시간

컴퓨터 사용시간	빈도(명)	비율(%)
1시간	11	64.7
2시간	3	17.6
4시간	1	5.9
5시간 이상	2	11.8
합계	17	100.0

※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17명에 한함

〈표 4-25〉 컴퓨터 활용용도

컴퓨터 활용용도	빈도(명)	비율(%)
업무용 응용프로그램 사용	4	17.4
학습 및 교육용으로 사용	2	8.7
영농에 필요한 정보 수집	4	17.4
인터넷 동호회 활동	4	17.4
전자 상거래에 사용	4	17.4
게임·오락	5	21.7
합계	23	100.0

※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17명에 한함(복수응답)

일상생활의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본인의 건강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17명(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또한 노령화된 농촌의 특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12명, 16.0%), 자녀 문제(11명, 14.7%), 노후생활(6명, 8.0%), 가족원 건강문제(5명, 6.7%) 순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사람도 15명(20.0%)이 있었다. 기타 문제로는 자녀문제+노후생활, 노후생활+경제적 문제, 이웃과의 갈등, 취업 문제, 일이 힘들 등이 있었다.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겪는 다기 보다 어느 곳에 거주하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같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하게 되는 건강 문제, 부모로써 너무도 자연히 하게 되는 자녀 걱정 등이 주를 이루었다.

〈표 4-26〉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일상생활 어려움	빈도(명)	비율(%)
가족원 건강문제	5	6.7
본인 건강문제	17	22.7
노후 생활	6	8.0
자녀 문제	11	14.7
노부모와의 문제	2	2.7
경제적 문제	12	16.0
육아의 어려움	2	2.7
없음	15	20.0
기타	5	6.7
합계	75	100.0

평소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0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가끔 느낀다'는 응답자가 21명(28.0%), '자주 느낀다'는 응답자가 4명(5.3%)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언급한 농촌에 거주하면서 만족하는 요인들 중 좋은 자연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도시 근로자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다는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

에서 볼 때 농촌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7〉 우울감 또는 소외감을 느끼는 빈도

우울·소외감 빈도	빈도(명)	비율(%)
전혀 느끼지 않음	50	66.7
가끔 느낌	21	28.0
자주 느낌	4	5.3
합계	75	100.0

평소 어려움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조사 결과, ‘딱히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2.7%(47명)로 나타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에 대한 도움 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11명, 14.7%),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도 각각 8명(10.7%)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1명(1.3%)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응급상황 발생 시 조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 등이 발생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4-28〉 평소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 주는 사람	빈도(명)	비율(%)
딱히 없음	47	62.7
가족	11	14.7
이웃	8	10.7
친구	8	10.7
기관	1	1.3
합계	75	100.0

2) 일터에서의 주민 생활상

화정1리는 과거 ‘채운 묵’으로 유명한 묵 마을이었다. 언제부턴가 마을 사람들이 상수리 묵을 만들어 강경 장터에 내다 팔았는데, 새마을운동 때는 ‘묵 마을’로 지정되어 마을 들머리에 안내판이 세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묵을 만들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거나 나이가 들어 하나 둘씩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무허가 식품 제조로 단속을 맞아 현재 묵 장사는 자취를 감추었다. 한창 묵 장사가 잘 될 때는 이 일 자체가 마을 경제활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외부에서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도 묵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림 4-2〉 상수리묵마을 안내판

묵 장사를 할 때 생활은 말도 못하게 힘들었지. 21살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집에 애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 애를 업고 묵 장사를 다녀야 했어. 새벽 3시에 일어나 그 땐 여기 물도 없어서 철로 너머에서 물 지게로 물을 길어 와야 했어. 그래서 물 끓이고, 묵 넣고, 그렇게 해서 묵이 만들어지면 이걸 지고 다시 강경까지 걸어가서 팔았지. 당시 쌀 1말 빌리면, 그걸 갚으려고 5일은 묵 일을 해야 됐어. 일 힘든 건 말도 못해.

- 송00 씨(75세) 인터뷰 중에서

오랫동안 많은 마을 주민들이 목 장사를 했다고 하지만, 화정1리는 기본적으로 벼농사 농업 지대에 속한다. 마을의 경지조건을 살펴보면 화정1리는 지난 20년간 경지면적에 별 변화가 없고 논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96.6%로 순수 벼농사 평야지대이다(박진도, 2010a).

〈표 4-29〉 마을의 경지조건

(단위 : ha, %)

	농가호당경지면적		논 비율		임차지 비율	
	2002년 3월	2008년 7월	2002년 3월	2008년 7월	2002년 3월	2008년 7월
화정1리	2.01	1.48	96.4	96.6	50.0	58.07
전국 평균	1.37	1.45	60.8	59.5	46.0	43.0

※ 자료 : 박진도(2010a) 자료에서 재인용

화정1리 주민들의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75명 중 44명(58.7%)만이 현재 취업을 한 상태이며 이는 1981년 당시의 취업률 57.5%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농업 종사자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의 비율은 1981년 86.9%에서 2011년 45.5%로 약 40% 정도 감소하였으며, 비농업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의 비율은 1981년 13.1%에서 2011년 54.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농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현저하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30〉 취업자 비중 및 농업 종사자 비중

	2011년		1981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마을 전체 인구	162		362	
조사 대상자 전체	75		362	
취업자 전체	44	(58.7)	222	(57.5)
- 농업 취업자	20	45.5	193	86.9
- 비농업 취업자	24	54.5	29	13.1
무직	18			
주부	10			
학생	3			

※ 자료 : 현장조사 결과 및 박진도(1981) 자료 재인용

화정1리 주민들의 직업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종사자 다음으로 무직자가 많은데(18명, 24.0%) 이들은 대부분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 때문에 직업을 중단(73.3%)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마을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을 그만 두기 전의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75%가(12명) 농업에 종사했었다고 응답하였다. 과거 조사결과에 견주어 볼 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오던 분들이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중단한 사례로 사료되며 농업 종사자의 감소된 비중의 일정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을 그만 둔 시기는 개인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농업에 특별한 제한연령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상태나 개인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1〉 무직자들의 이전 직업

이전 직업	빈도(명)	비율(%)
농업	12	75.0
일용직	1	6.3
회사원	1	6.3
자영업	2	12.5
합계	16	100.0

※ 무직인 사람(18명)에 한함

※ 결측값 2명(무응답)

비농업종사자들은 일용직 종사자(주로 비닐하우스 노동자)의 수가 6명, 일반 회사원 4명, 자영업자 3명으로 나타났고, 기타 직업으로는 경비원, 주차 관리, 주유소 주유원, 운송업 보조 등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 내 비농업 취업인구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조사 당시에도 비농업취업자 중 일용직 종사자(건설노동자, 하우스 노동)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이들의 취업기회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고 취업내역이 불안정하며 소득 수준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비농업취업자의 불안정한 고용실태가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32〉 조사대상자의 직업 내용

직업내용	빈도(명)	비율(%)
농업	20	26.7
무직	18	24.0
주부	10	13.3
학생	3	4.0
운송업	1	1.3
일용직	6	8.0
회사원	4	5.3
자영업	3	4.0
기타	10	13.3
합계	75	100.0

하우스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마을의 이00 씨 집에서 하고 있어. 여기서 상추와 고추 심고 따는 일을 하고 있지. 하루 4만원을 받으면서 한 달에 15~20일 정도 일을 하는데……. 보통 하루 일하는 시간은 11시간이야.

- 권00 씨 인터뷰 중에서

주업 이외에 다른 부업도 함께 하는 사람은 전체 중 3명으로 조사되었다. 각자가 하고 있는 부업의 종류는 식당주방일, 관청사업으로 하는 화단 청소, 농축관련업 등으로 매우 다양했으며 부업에 투자하는 시간과 횟수 또한 달리 나타났다.

〈표 4-33〉 부업 종류 및 투자시간

부업종류	부업에 투자하는 시간		
	시간/day	일/week	회/month
고용업(공장취업, 식당주방일 등)	7	2	8
관청사업(화단조성, 청소 등)	8	5	20
농축관련업	2	7	30

※ 부업을 가진 사람에 한 함 : 총 3명

농촌 주민들은 농사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부업을 통해서라고 가구소득을 조금 이나마 올리거나 하지만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일하는 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 내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시간이 빌 때는 다른 일을 하려고 해. 그런데 일이 별로 없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면 좋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얼마든지 하지 뭐. 지금 쌀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거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현재 선00씨는 주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60마지기 땅을 경작중이다). 지금까지 많이 해봤지. 화장품회사도 다녀왔고……. 여기 사람들도 많이 가는데, 하우스 일도 해. 하우스 일이라는 게 딸기, 상추 따고 그런 거지.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 하루 종일 앉아서 해야 하니까……. 이렇게 버는 돈이 한 1년에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 그렇다고 이런 일(부업거리)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 한 달에 4~5번 정도 할까 말까야. 보통 추수 전에 많고, 더울 때, 7~8월에는 그마저도 없어.

- 선00 씨 인터뷰 중에서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 직업에의 종사년수를 조사한 결과 종사기간별 종사자 수는 거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표 4-34〉 현 직업에의 종사기간별 종사자 수

종사년수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4	9.3
2~10년 이하	11	25.6
11년~30년 이하	14	32.6
31~50년 이하	11	25.6
51년 이상	3	7.0
합계	43	100.0

※ 취업자(무직, 학생, 주부인 사람 제외) 총 44명에 한함

※ 결측값 1명 : 무응답

현재의 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생계유지’가 15명(34.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달리 할 게 없어서’ 현 직업을 하고 있다는 응답도 29.5%(13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가족이 하고 있는 일을 따라 하고 있는 사람이 7명, 오래 전부터 해오던 일이라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3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이유로는 개인발전을 위해서, 직업을 구하던 중 현 일자리가 생겼다 또는 소개를 받아서 하게 되었다는 경우 등이 있었다. 직업 선택사유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농촌 주민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기보다 주변 상황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달리 할 게 없어서’ 현 직업을 선택했다고 답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에게 직업을 묻는 과정에서 농사 외에는 배운 게 없어서, 농사 외에는 달리 할 게 없어서 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화정1리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직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마치 농사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4-35〉 현 직업의 종사 이유

종사이유	빈도(명)	비율(%)
생계유지	15	34.1
달리할 게 없어서	13	29.5
가족 따라	7	15.9
해오던 일이라서	3	6.8
기타	6	13.6
합계	44	100.0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21살부터지. 농사야 어릴 때부터 해왔고, 그렇다고 다른 할 일도 없었어. 지금 4,000평의 땅에 농사를 지어서 버는 돈이 1,000만원(연간 총 수입)이야. 그래도 1년에 나머지 비용으로 쓰는 것을 제외하면 결국 남는 돈이 별로 없어.

- 윤00 씨(56세) 인터뷰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10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20명(50.0%)으로 나타나 하루 생활 중에서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7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까지 고려해 볼 때 주민의 상당수가 하루 중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취업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하루 근로시간	빈도(명)	비율(%)
1시간~3시간	7	17.5
4시간~6시간	6	15.0
7시간~9시간	7	17.5
10시간이상	20	50.0
합계	40	100.0

※ 결측값 4명 : 무응답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번기와 농한기간에 따라 근로시간이 크게 달라진다. 실제 이번 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농번기(벼 수확철)에 속하여 밤늦게까지 일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농한기에는 오전 10시쯤(더워지기 전)과 오후 4시쯤(더위가 가실 무렵) 논, 밭에 나가 1~2시간 정도 일을 한다. 그러나 모내기 또는 벼 수확철과 같은 농번기에는 새벽 4~5시에 나가 저녁 8~9시까지, 하루에 무려 16~17시간동안 농사일을 하며 바쁘게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쁠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일을 할 때도 있지. 해가 떨어진 뒤에도 집 마당에 불을 켜고 일을 하는데, 지금은 쉬면 안 돼. 이렇게 일해도 일을 다 못 해……. 요즘 같은 때는 쉴 시간 자체가 없어.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요즘에는 1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인부 구하는 게 여간 어려워.

- 김OO 씨(59세) 인터뷰 중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렵다고 답한 사람은 20명(45.5%)으로 어렵지 않다고 답한 사람 9명(20.4%)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5명(34.1%)이었다.

〈표 4-37〉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어려움 수준

직업의 어려움	빈도(명)	비율(%)
매우 어려움	4	9.1
다소 어려움	16	36.4
보통	15	34.1
거의 어렵지 않음	7	15.9
전혀 어렵지 않음	2	4.5
합계	44	100.0

일이 어렵다고 답한 사람들은 직업이 어려운 이유로 신체적으로 힘들다(11명, 55.0%)고 지적인 경우가 많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강도에 대한 버거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외에 하는 일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적다는 응답자가 2명(10.0%) 있었고, 일손이 부족하여 일이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가 3명(15.0%)이었다.

그러나 직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딱히 없다는 응답자가 대부분(20명 중 16명, 80.0%)이었다. 인력이 부족할 때 인부를 요청하여 해결하거나 일이 신체적으로 힘들거워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매우 적은 수에 불과했다(각 1명). 즉 농사일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신체적으로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며, 사실 뾰족한 해결책 또한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도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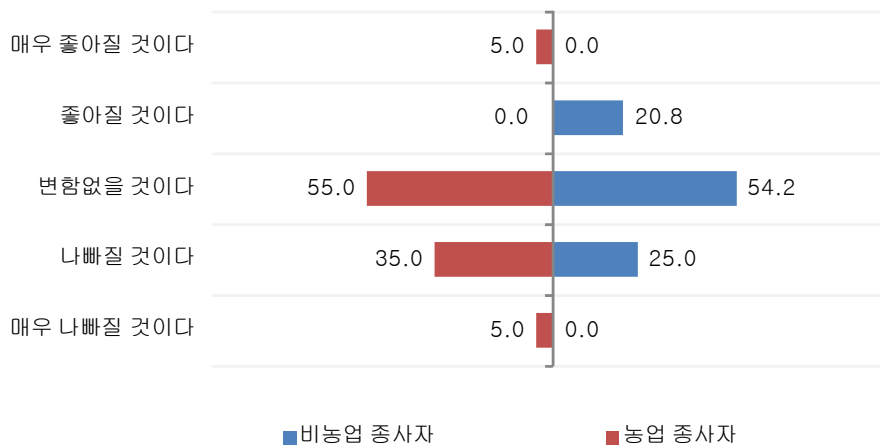
조사대상자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현 직업의 장래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변함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24명, 54.5%) 앞으로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4명(31.8%)에 달했으며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7%(6명)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화정1리 주민들은 직업의 장래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은 향후 직업의 장래성을 낙관하는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2011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도시민 90.2%와 농업인 81.3%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제 화정1리 농업 종사자들은 농업의 장래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40%에 달해 전국 통계자료와의 차이를 보였다.

〈표 4-38〉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장래성

직업의 장래성	전체		농업 종사자		비농업 종사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좋아질 것이다	1	2.3	1	5.0	0	0.0
좋아질 것이다	5	11.4	0	0.0	5	20.8
변함없을 것이다	24	54.5	11	55.0	13	54.2
나빠질 것이다	13	29.5	7	35.0	6	25.0
매우 나빠질 것이다	1	2.3	1	5.0	0	0.0
합계	44	100.0	20	100.0	24	100.0

※ 취업자(무직, 학생, 주부인 사람 제외) 총 44명에 한함



〈그림 4-3〉 농업 종사자와 비농업 종사자의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견해 차이

정부가 향후 일자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0%(전체 75명 중 18명)에 불과했다(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 57명, 76.0%). 농촌지역의 낮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의 일자리 사업 참여의향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들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대답이 많았다.

일자리 참여시 고려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을 보였는데,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능력이나 건강상태로 가능한지의 여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일자리 사업 창출 정책은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좀 더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 평소 관심분야나 급여 수준이 일자리 사업 참여시 중요한 고려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시 우선 고려사항

일자리사업 참여 고려사항	빈도(명)	비율(%)
내 능력, 건강상태로 가능한지 여부	7	38.9
충분한 급여	2	11.1
평소 관심분야	3	16.7
기타	6	33.3
합계	18	100.0

농촌 주민들의 농업활동 및 영농기반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지규모별 농가구성을 살펴보면 화정1리는 2002년~2008년 사이에 0.5ha~2.0ha 규모의 농지 비중이 36.7%에서 28.9%로 줄어든 반면 0.5ha 미만 규모의 농지는 36.7%에서 42.1%로, 3.0ha 이상 규모의 농지 비중은 17.0%에서 21.1%로 증가했다. 특히 5ha 이상의 농가는 1990년 2호에서 2008년 6호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5ha 이상의 경지면적의 갖고 있는 농가의 경지면적 비중은 1990년 17.5%에서 2008년 65.9%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처럼 농가의 양극화 경향은 경지면적의 상층농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경지규모를 확대한 농가는 8호인 반면에 축소된 농가는 18호에 달해, 중간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지규모 1ha 미만의 영세농에서도 계층변동이 심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진도, 2010a).

〈표 4-40〉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동향(1981년~2008년)

경지면적	농가호수(%)			
	2008년	2002년	1990년	1981년
0.3ha미만	26.3	19.5	10.0	10.4
0.3ha-0.5ha미만	15.8	19.5	10.0	10.4
0.5ha-1.0ha미만	15.8	9.8	33.3	29.9
1.0ha-1.5ha미만	10.5	22.0	16.7	32.5
1.5ha-2.0ha미만	2.6	4.9	8.3	5.2
2.0ha-3.0ha미만	7.9	7.3	13.3	7.7
3.0ha이상	21.1	17.0	8.4	3.9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박진도(2010a) 자료에서 재인용

화정1리는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이며 쌀 이외에 재배하는 작물로는 들깨, 딸기, 상추 등이 있다. 그러나 벼농사를 통해 얻는 소득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농사가 아닌 다른 일들도 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주로 비닐하우스 작업이나 밭 일 등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겨울철에 ‘냉이’ 재배를 해서 팔고 오면 보통 10만 원씩 받아오는데, 이렇게 버는 수입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곽00 씨(53세) 인터뷰 중에서

이 마을 살면서 농사일만 계속 했던 건 아니죠. 남편과 처음엔 농사일을 했지만 잘 안 팔려서 빚만 늘게 되고, 그래서 농한기에 공장 다니면서 다른 일을 알아봤죠. 그래서 농사일은 바깥양반만 하고 난 축협 유통센터에 다녀요. 고기를 잘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돈 벌어 자식들 키우니까 재밌게 느껴져서 힘들지 않아요.

- 안00 씨(58세) 인터뷰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가 25.8%(16명)로 가장 많았고, 관리기 17.7%(11명), 이앙기 11.3%(7명), 분무기 9.7%(6명), 트랙터 8.1%(5명), 콤바인 6.5%(4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3ha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농기계를 보유하고 벼농사를 영위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4-41〉 보유 농기계 종류

보유 농기계	빈도(명)	비율(%)
경운기	16	25.8
관리기	11	17.7
이앙기	7	11.3
분무기	6	9.7
트랙터	5	8.1
콤바인	4	6.5
건조기	4	6.5
바인더	2	3.2
예취기	2	3.2
온풍기	2	3.2
절단기	1	1.6
소형농기구	1	1.6
기타	1	1.6
합계	62	100.0

※ 중복응답 포함

재배 농산물의 판매는 '정미소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31.6%(12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장·공판장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8명(21.1%),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7명(18.4%)으로 나타났다. 판매하지 않고 자체 소비하는 경우도 6명(15.8%)이 있었다. 반면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판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2〉 농산물 판매방법

농산물 판매방법	빈도(명)	비율(%)
정미소	12	31.6
시장, 공판장 판매	8	21.1
농협을 통해	7	18.4
판매 않고 자체 소비	6	15.8
아는 사람을 통해 판매	4	10.5
정부매상	1	2.6
인터넷	0	.0
합계	38	100.0

농촌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8가지 증상(어깨 결림, 허리 통증, 손발 저림, 야뇨증, 호흡곤란, 불면증, 현기증, 헛배 부름)에 대해 어느 정도 그 증상을 느꼈는지 조사한 결과, 농부증 증세를 겪고 있는 사람은 19명 중 2명에서 6명 정도로 나타났다. 농부증 증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현되는 증세는 어깨 결림(6명), 허리 아픔(4명), 손발 저림(4명)이었다.

〈표 4-43〉 농부증 발현율

농부증	거의 없음	때때로	항상	합계
어깨가 결린다	13	3	3	19
허리가 아프다	15	1	3	19
손발이 저린다	15	2	2	19
자다가 소변 때문에 1회 이상 일어난다	15	1	3	19
숨이 차다	16	3	0	19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16	2	1	19
현기증이 있다	17	1	1	19
헛배가 부르다	17	2	0	19

※ 직업이 농업인 사람(총 20명)에 한함

※ 결측값 1명 : 선작

또한 농업작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농약작업 관련 증상

농약증상	거의 없음	때때로	항상	합계
심하게 지침	17	2	0	19
두통·어지러움	18	1	0	19
구역질·구토	16	2	1	19
피부 자극	18	1	0	19
눈 자극	18	1	0	19
가슴 답답	18	1	0	19
초조·우울	19	0	0	19

※ 직업이 농업인 사람(총 20명)에 한함

※ 결측값 1명 : 선작

농산물 가격 변화에 따라 느끼는 안전도 수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안전하다(매우 안전+비교적 안전)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 20명 중 절반가량은 불안전하다고 답하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도 10명에 달하였다. 조사결과에 비춰볼 때 농산물 가격변화로 인해 농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농업활동이나 농산물가격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안감을 표하거나 불만을 표출하였다.

〈표 4-45〉 농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안전도

농산물 가격 변화 안전도	빈도(명)	비율(%)
매우 안전	0	.0
비교적 안전	0	.0
보통	10	50.0
다소 불안전	5	25.0
매우 불안전	5	25.0
소결	20	100.0

※ 직업이 농업인 사람에 한함 : 20명

항상 일손이 부족하고, 채산성은 점점 떨어져 걱정이 많아.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농산물 가격이 점점 더 떨어지고. 그런데도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더 답답할 노릇이지. 사실 앞으로 농사일에 대해서도 크게 나아질 것이 없을 거야. 농사꾼들이 살려면 쌀 가격 보전부터 꼭 이루어져야 할 텐데…….

- 윤00 씨(59세) 인터뷰 중에서

농촌 주민들의 소득/지출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구성원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가의 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2.0%(8명)로 가장 많았고, 농업소득 또한 2,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68.0%)인 것으로 조사되어 화정1리 주민들이 농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경작활동을 하거나 약간의 농외소득, 이전소득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4,000만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각각 2명씩(8.0%) 있어 농가소득 규모면에서 볼 때 소농과 대농 간의 소득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외소득 또한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2,000만원 이내(84.7%)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전소득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돈이나 ‘국민연금’을 통해서 받는 돈이 대부분이며, 평균 한 가구 당 9만원(1인 가구 기준)에서 15만원(2인 가구 기준)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6〉 농가 소득 규모

농가소득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1000만원 미만	8	8	5	9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3	9	6	0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5	3	0	0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5	3	0	0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	2	2	0
5000만원 이상	2	0	0	0
소계	25	25	13	9

비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농가 전체 중 56.8%(21명)가 1,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혼자 살거나 노인 가구인 경우가 많아 이전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128만원(월 94만원)임을 감안할 때, 화정1리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주민들 중 절반 이상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농업 취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이 현재 얻고 있는 소득 또한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비농가의 경우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자녀용돈과 같은 이전소득의 중요성은 그들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실정이므로 정책방향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47〉 비농가 소득 규모

비농가소득	비농가소득	이전소득
1000만원 미만	21	37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9	0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	0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0	0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	0
5000만원 이상	4	0
소계	37	37

직업 활동을 통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비 조달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공적연금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응답이 48.6%(1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동거자녀의 보조를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이 35.1%(13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이며 이들 중 80% 이상은 외부로부터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통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예금이나 적금, 저축증권 등의 이익을 통해 생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 또는 고령자 대부분이 본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8〉 무직자들의 생활비 조달방법

생활비 조달	빈도(명)	비율(%)
예금·적금	1	2.7
공적연금	18	48.6
개인연금	0	.0
저축·증권 등의 이익	1	2.7
부동산 집세	0	.0
퇴직금	0	.0
국가·지자체 보조	4	10.8
비동거자녀 보조	13	35.1
동거자녀 보조	0	.0
합계	37	100.0

※ 소득이 없는 사람에 한함(복수응답 포함)

실공장을 10년 다니고, 서울에서 노가다나 염전, 전기회사, 논산 훈련소 똥장사 조수도 했었제. 안 해본 게 없어. 그러다 아내 고향인 이 마을로 한 50년 전 쯤 들어왔는데. (중략) 지금은 힘이 들어서 일은 못하고, 여기 발만 가꾸고 있제…….(소득은 없고) 기초노령연금으로 받는 돈이 7만 2천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여기 돈으로 약값과 병원비 내고 있지. 아내가 노령연금, 국민연금 받고 있고, 장애2급 보조금도 받고(조00씨 아내는 현재 사랑병원에서 3년간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도 부족해.

- 조00 씨(80세) 인터뷰 중에서

소득이 없는 주민들은 생계보조수당이나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실제 이런 보조금은 생활하는데 부족한 실정이다(매우 부족 29.2% + 다소 부족 33.3%). 적정하다고 답한 사람은 2명(8.3%)에 불과했다.

〈표 4-49〉 생계보조수당이나 연금액의 부족 수준

부족여부	빈도(명)	비율(%)
매우 부족	7	29.2
다소 부족	8	33.3
보통	7	29.2
다소 적정	2	8.3
매우 적정	0	.0
합계	24	100.0

※ 생계보조수당이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 한함

월 평균 지출액을 알고 있는 사람(42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 10~3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12명(28.6%)으로 화정1리 주민 중 상당수가 적은 액수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월 평균 지출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소수(4명, 9.5%) 있었다.

〈표 4-50〉 월 평균 지출액

월 평균 지출액	빈도(명)	비율(%)
10~30만원 미만	12	28.6
30~50만원 미만	5	11.9
50~100만원 미만	10	23.8
100~200만원 미만	11	26.2
200만원 이상	4	9.5
소계	42	100.0

※ 월평균 지출액을 알고 있는 사람(총 42명)에 한함

생활하는데 지출되는 금액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 1순위는 의료비(2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는 2순위와 3순위에서도 각각 11.3%, 10.4%를 차지해 주민들의 생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화정1리 주민 중 고령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들의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순위 항목 중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주거비와 식비(각각 17.3%)였고, 관혼상제비도 꽤 높은 비중(12.0%)을 차지하였다. 2순위와 3순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항목이 광열수도비(각각 35.2%, 25.0%)이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농촌 지역에서는 높은 기름 값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저축이나 보험, 연금과 같은 항목은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생활비 지출이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 당장의 생계 및 생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 지출액 비중별 순위

지출액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관혼상제비	12.0	2.8	10.4
광열수도비	9.3	35.2	25.0
교양오락	2.7	0.0	0.0
교육비	5.3	7.0	4.2
교통통신비	0.0	8.5	12.5
기타	2.7	0.0	8.3
미용위생비	0.0	0.0	2.1
식비	17.3	12.7	6.3
의료비	28.0	11.3	10.4
저축, 보험, 연금	1.3	4.2	2.1
종교	0.0	2.8	2.1
주거비	17.3	12.7	10.4
피복비	4.0	2.8	6.3
합계	100.0	100.0	100.0

평소 한 달에 100만 원 가량 돈을 쓰는데, 대부분이 약값으로 나가. 아픈데 가 한 두 군데가 아녀. 갑상선, 관절 약. 보약도 먹지, 여기저기 돈이 많이 나가.

- 이00 씨(78세) 인터뷰 중에서

내가 우리 마을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집사람 이랑 단둘이서 살고 있어. (중략) 매달 기초노령연금으로 7~8만 원 가량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애들한테 필요할 때 달라고 해. 평소에는 돈을 잘 안 써. 돈을 써도 대부분 병원비로 많이 나가지. 80살 까지 농사일을 하면서 2,700만원 모았는데, 벌써 700만원이나 썼어.

- 윤00 씨(90세) 인터뷰 중에서

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50명으로 63.3%를 차지해 주민들 대부분이 노후준비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연금보험(15명, 19.0%)이나 예금·적금 형태(10명, 12.7%)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 노후준비 방법

노후준비	빈도(명)	비율(%)
안함	50	63.3
예금·적금	10	12.7
부동산	1	1.3
자녀에게 의지	2	2.5
연금 보험	15	19.0
기타(국가 보조금)	1	1.3
합계	79	100.0

※ 복수응답 포함

화정리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하는 곳은 논산 시내나 인근 타 읍면으로 강경읍과 연무읍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8명, 90.6%). 채운면 소재지 내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인근 읍 지역으로 인한 해당 면의 중심지 기능 쇠퇴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필품을 구입하는 장소로 39명(52.0%)이 시장(논산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슈퍼마켓 및 연쇄점(15명, 20.0%), 대형할인매장(14명, 1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3〉 생필품 구입을 위한 방문 지역

생필품 구입 지역	빈도(명)	비율(%)
마을 내	2	2.7
채운면소재지	3	4.0
논산시내 타 읍면	19	25.3
논산시내	49	65.3
충남도내 타 시군	1	1.3
인터넷	1	1.3
합계	75	100.0

3) 컴퓨터에서의 주민 생활상

화정1리 주민들이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TV시청(1순위 28명, 37.3%)을 하거나 이웃이나 친구와 이야기(1순위 22명, 29.3%)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은 2순위와 3순위에서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휴식한다, 산책이나 스포츠 활동을 즐긴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4-54〉 주민들이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

여가시간 하는 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tv시청	28	7	3	3	
이웃, 친구와 이야기	22	7	6	1	1
집에서 휴식, 낮잠	8	9	6	6	6
산책, 스포츠	4		1	1	
친구만나기, 모임참가	2	4	5	2	
독서, 신문/잡지 보기	2	4	2		3
종교 활동	2	2	1		2
음주	2		2	1	
가족과 대화, 외식	1	2			
생활취미 활동			1	1	
등산, 낚시	1	1			1
라디오 듣기			1		
화단 가꾸기	1				
음악 감상				2	
쇼핑	1		1	2	1
스포츠 관람활동		1			
여행, 관광		2			1
인터넷, 게임	1	5	1	2	1
화투, 장기, 바둑		4			
합계	75	48	30	21	16

또한 마을에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여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다. 여가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딱히 없다'고 답한 사람이 다수였다(31명, 41.3%). 마을회관에서 여가시간을 보낸다는 사람은 28명(37.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현재 화정1리 마을회관에는 주로 노인들이 모이고 있다. 이 외의 여가공간으로는 건강체육시설, 시장, 친구집, 친척집, 산이나 공원 등 각자의 여가활동에 맞춰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4-55〉 여가시간을 보내는 공간

여가시간 보내는 공간	빈도(명)	비율(%)
딱히 없음	31	41.3
마을회관	28	37.3
건강체육시설	2	2.7
문화센터	1	1.3
기타	13	17.3
합계	75	100.0

〈표 4-56〉 평소 주로 만나는 사람

주로 만나는 사람	빈도(명)	비율(%)
따로 없음	29	38.7
회관에 모인 사람	14	18.7
또래 친구	9	12.0
집주변 주민	7	9.3
이웃	5	6.7
같은 종교 신자	3	4.0
기타	8	10.7
합계	75	100.0

평소 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한 조사결과 역시 ‘따로 없다’고 답한 사람이 29명(38.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소에 주로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마을회관에 모인 사람들이 거나(14명, 18.7%) 또래 친구(9명, 12.0%)나 집주변 주민(7명, 9.3%)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마을회관이나 동네 길을 오고 가며 마주치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며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들이 만나서 주로 나누는 이야기 주제 역시 ‘딱히 정해진 것이 없다’는 응답이 53.3%(40명)에 달했으며, 평소 먹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거나(14명, 18.7%) 농사, 건강, 종교, 자녀,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7〉 평소 주로 나누는 이야기

주로 하는 이야기	빈도(명)	비율(%)
따로 없음	40	53.3
먹고 사는 이야기	14	18.7
농사	7	9.3
자녀, 가족	3	4.0
건강	4	5.3
종교	4	5.3
기타	3	4.0
합계	75	100.0

여가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평소에 주로 만나는 사람도 마을회관에서 만날 때가 많다. 마을회관에 모이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이 대부분이며, 마을회관의 이용률은 남자보다 여자들의 이용률이 더 높다. 마을회관에 가지 않는 주민들은 집에서 쉬거나 TV를 보며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촌 주민의 삶이 상대적으로 무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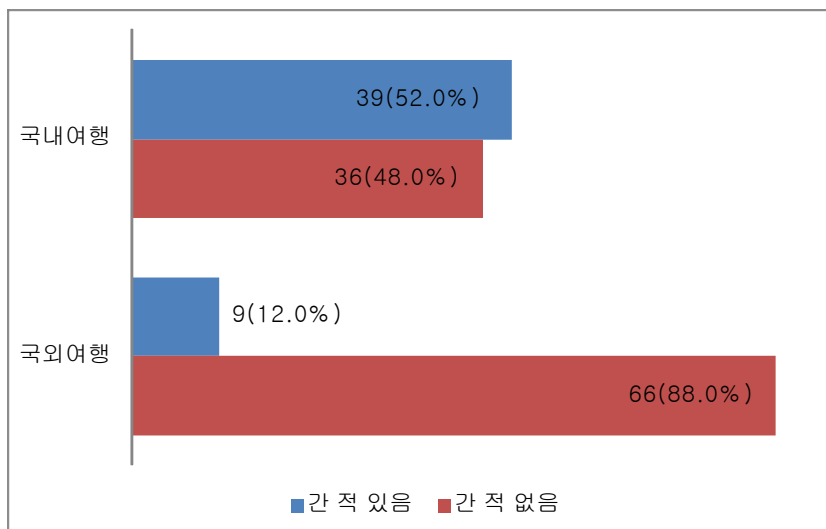
평소에는 마을 회관으로 가. 가면 가끔 화투를 치거나 윷놀이를 하고 보통은 그냥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지……. 회관에 가면 아침과 오후에 가는데, 요즘 같은 때는 아침에는 2~3명, 오후에는 5~6명이 있어. 겨울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두 배 정도 더 오고. 남자들은 잘 안 와서 자물쇠로 채워두는데, 겨울에는 남자 쪽 방도 열려둬……. (중략) 만나면 뭘 얘기하긴, 건강얘기, 자식얘기하지.

- 오00 씨(76세) 인터뷰 중에서

쉬는 날에는 집에서 TV나 보지 뭘 하겠어……. (중략) 마을에서 주로 만나는 사람은 이장님이지. 이장님 소를 한 번씩 봐주고 있기 때문에……. (중략) 마을 밖으로 나갈 일도 거의 없어서 한 달에 2번 정도나 나갈 뿐이여.

- 윤00 씨(56세) 인터뷰 중에서

화정리 주민들 중 최근 1년 이내에 국내 여행을 다녀 온 적이 있는 사람은 52.0%(39명)에 달하는 반면 해외 여행을 다녀 온 적이 있는 사람은 12.0%(9명)에 불과했다.



〈그림 4-4〉 국내외 여행 여부

여행은 주로 교회나 산악회 같은 단체를 통해 다녀온 경우가 많으며, 여행의 횟수로는 년 1회 다녀온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8〉 국내외 여행 빈도

구분	빈도	혼자	부부	가족	단체	합계
국내 여행	년 1회		1	2	10	13
	년 2회			3	6	9
	년 3회				3	3
	년 4회		1		1	2
	년 5회	1			1	2
	년 8회			2		2
	년 10회		4	1	1	6
	월 2회				2	2
국외 여행	년 1회			4		4
	년 2회		2	1	2	5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여가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없다고 말한 응답자가 36명(48.0%)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필요성 등을 인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사항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3.3%(1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9명, 12.0%), 건강문제(8명, 10.7%), 관련시설 부족(4명, 5.3%) 등이 지적되었다. 화정1리 주민 중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고령자이고, 앞서 조사되었던 것처럼 여가시간을 보내는 데 딱히 돈이 들지 않는 TV시청이나 이웃 또는 주민과의 담소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요인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9〉 여가활동 장애요인

여가활동 장애요인	빈도(명)	비율(%)
없음	36	48.0
시간 부족	10	13.3
경제적 부담	9	12.0
건강문제	8	10.7
관련시설 부족	4	5.3
정보 부족	2	2.7
적당한 취미 없음	2	2.7
기타	2	2.7
프로그램 부족	1	1.3
함께 할 사람 없음	1	1.3
합계	75	100.0

※기타 2명 : 육아, 이웃과 친하지 않음

사실 화정1리 주민들은 논, 밭에 나가 일하는 시간 외에는 모두 여가시간이라고 여길 만큼 여가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실정이었다. 또한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주민들은 하루 대부분이 여가시간이라고 여겨질 만큼 따로 지정될 수 없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실제 일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없어 여가시간을 낼 여유가 없는 실정이었다.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여가시간이 없어. 여기는 놀 것도 없고, 농사일이 한가할 때도 동네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거나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전부여. 마을회관도 나이 든 사람이나 가지 우리 나이 사람들이 가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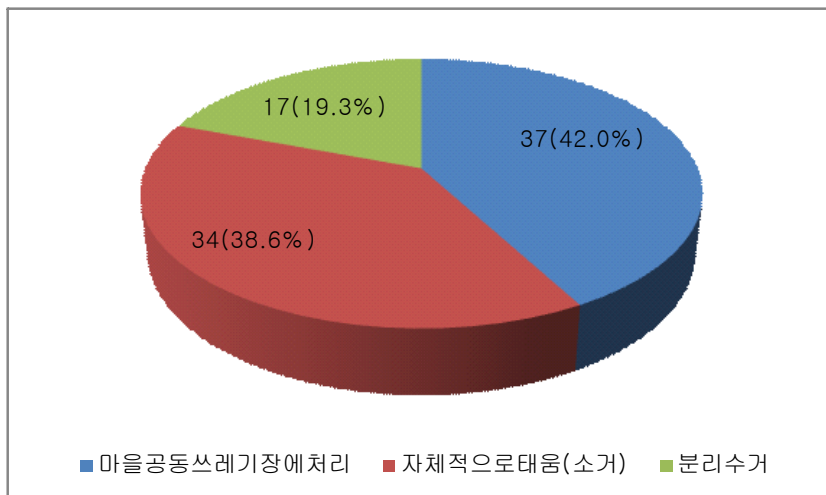
- 조00 · 최00 부부 인터뷰 중에서

사실 딱히 여가라는 게 없어요 마늘을 까거나 밭에 가서 작물들을 돌보는 것이 놀고 쉬는 일이죠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아까워 괜히 마음이 조금해지니까 이것저것 해요.

- 안00 씨(58세) 인터뷰 중에서

경관 및 환경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마을에 있는 공동쓰레기장에 내어 놓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37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자체적으로 태운다'고 응답한 비율도 38.6%(34명)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주민은 19.3%(17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은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한 인식 확립이 미흡한 데 기인하며 또한 집 앞의 넓은 마당을 이용해 쉽게 폐기물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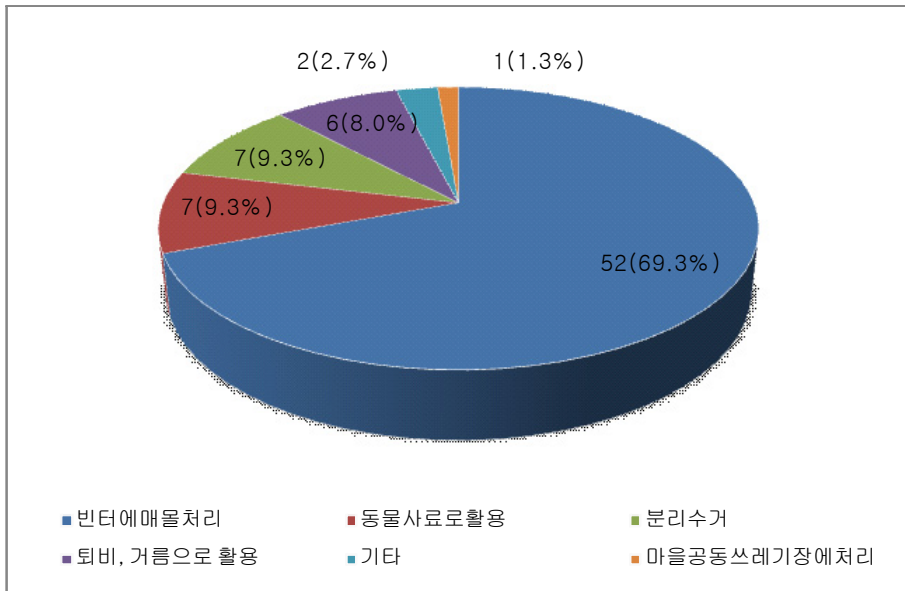


〈그림 4-5〉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 중복응답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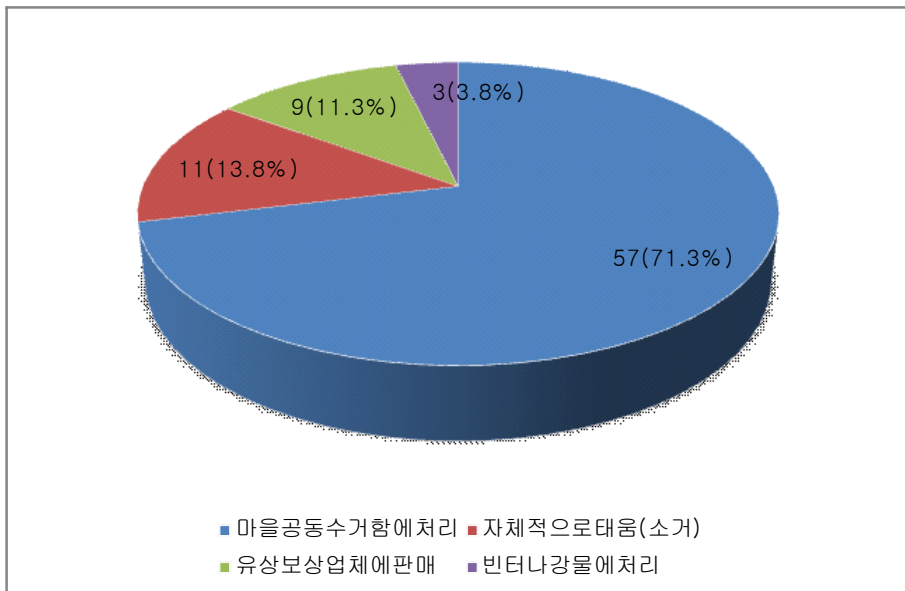
음식물 처리는 '빈터에 매몰 처리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69.3%(52명)로 매우 높았으며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비율은 10% 이하로 음식물 분리수거 실천비율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실천비율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또한 음식물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아 땅에 묻어도 지력에 크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과거부터 이어온 습관적 모습이며, 이 외 퇴비나 거름, 동물사료로 활용한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재활용품의 처리는 '마을공동수거함에 처리한다'고 답한 응답률이 71.3%(5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에 비해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외 자체적으로 소각하거나 유상보상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 4-6〉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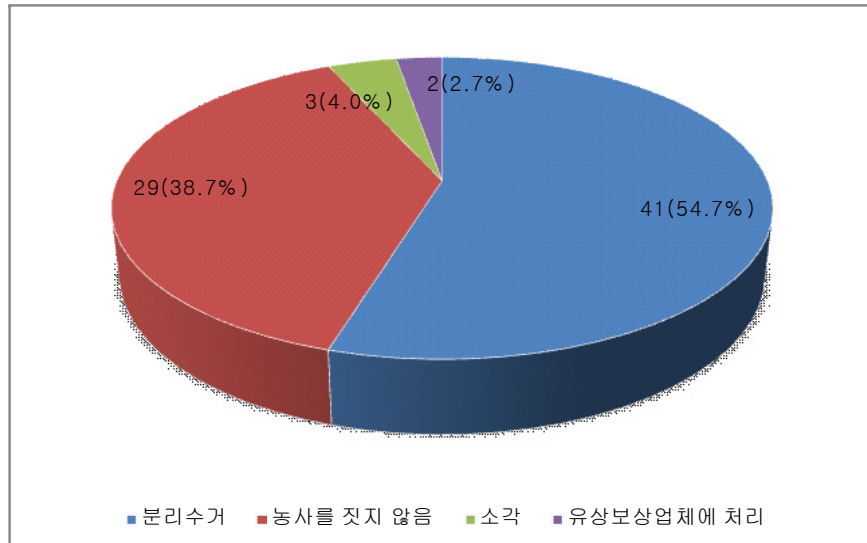
※ 기타 : 음식물 처리기 2명(동일 세대)



〈그림 4-7〉 재활용품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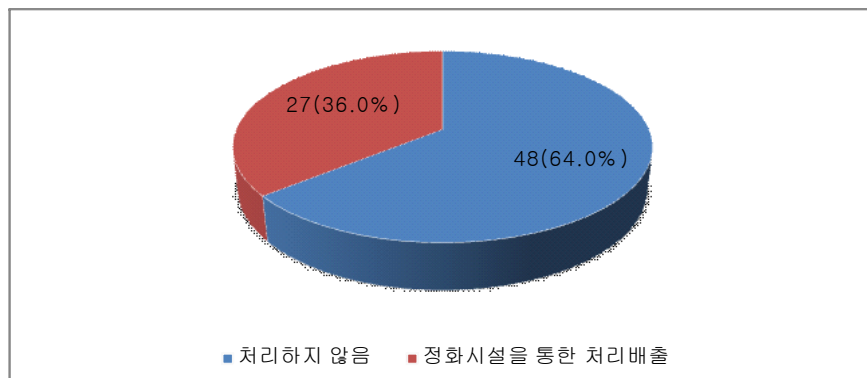
※ 중복응답 포함

폐영농자재는 ‘분리수거하여 처리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1명(54.7%)으로 가장 많았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면 73.2%가 분리수거를 통해 폐영농자재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처리방법으로는 소각하거나 유상보상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그림 4-8〉 폐영농자재 처리방법

오폐수는 처리하지 않고 배출시키는 경우가 64.0%(48명)로 정화시설을 통해 배출하는 경우(27명, 36.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오폐수 처리방법

마을의 전반적인 환경 오염수준에 대해 주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화정 1리는 농촌 지역이고, 마을 내 또는 주변에 마을을 오염시킬만한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소음과 공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농약 살포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이 다소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또한 마을 내에 입지하고 있는 축사와 병아리 부화장으로 인한 악취문제가 지적되었는데 특히 병아리 부화장은 마을 내 입주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강했고 아직까지 업주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0〉 마을의 환경오염 수준

	매우 좋음 매우 깨끗	약간 좋음 약간 깨끗	보통	약간 나쁨 약간 오염	매우 나쁨 매우 오염	합계
전반적인 환경오염 수준	30	29	11	5		75
수질오염수준	28	29	13	3	2	75
소음오염수준	36	27	10	2		75
악취오염수준	39	21	7	2	6	75
공기오염수준	37	26	10	2		75
토양오염수준	36	27	8	3	1	75

3. 종합고찰

우선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따라 해당지역이 8개 부문 31개 서비스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난방, 오폐수처리, 인도, 초고속망 4개 항목은 서비스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 부문 중 난방, 오폐수처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농어촌 지역 주민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한 지원 확대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교통 부문 중 대중교통 운행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차도와 구분된 인도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도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유치원, 초·학교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통학수단 제공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부문은 모든 항목의 서비스 제공이 양호한 수준이다. 정보통신 부문의 초고속망 서비스는 시설기반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아직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단계적 서비스 도입이 요구된다.

화정1리 주민 중 57.3%가 40년 이상 장기간동안 마을에 거주하였으며 이 마을에서 태어났거나 20~30세 사이에 결혼을 통해 마을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 인구 유입은 적은 편이지만 최근의 귀농·귀촌자가 8명 정도가 있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이 마을 주민의 58.6%를 차지하고, 20세에서 60세까지의 인구는 40.0%에 불과하여 마을이 초고령화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이 많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 상태가 이들 생활에서 주요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화정1리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건강상태 몹시 좋지 못한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 갈만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마을 회관에 나가서 이웃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집에서 TV를 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대부분 자가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교통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사람도 크게 없었는데, 일부 주민은 도시지역에 비해 버스가 다니는 횟수가 적고, 배차간격이 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마을에 노약자가 많아 승하차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본인의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문제, 노후생활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나 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기보다 어느 곳에 거주하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같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하게 걱정과 같은 것이었다. 평소 어려움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딱히 없는 경우가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와 같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 등이 발생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화정1리에서도 여느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농업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많은 농가들은 소규모 경작지를 운영하며 1,000만원 미만의 농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농업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로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불안감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취업자들은 비닐하우스 일용직 노동자, 건설노동자, 운전기사, 경비원 등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비농가 중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전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도 많다. 비농가의 경우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자녀용돈과 같은 이전소득의 중요성은 그들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실정이므로 비농가에 대한 소득지원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종사하는 일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고, 현 직업의 장래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많아 직업에 대한 주관적인 체감도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인인데 이들 중 80% 이상은 외부로부터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돈(노령연금, 자녀 보조 등)을 통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 또는 고령자 대부분이 본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캠페인 형식의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 지출되는 금액의 용도는 의료비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비, 광열수도비, 식비, 관혼상제비 또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정1리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노인들의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촌지역으로의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높

은 기름 값으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난방비 저감대책의 마련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저축, 보험, 연금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낮아 주민들 대부분이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돈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화정1리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지역은 논산 시내나 인근 강경읍과 연무읍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면의 중심지 기능 쇠퇴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필품을 구입하는 장소로 논산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정1리는 사실상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해 주민들 대부분은 이웃 또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집에서 쉬고 TV를 보며 무척 단조로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을회관이 유일무이하며, 만나는 사람 또한 마을회관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나 마을길을 오가다 만나는 이웃이 전부였다. 여행은 주로 교회나 산악회를 통한 단체여행을 많이 가며, 년 1~2회 정도 가는 걸로 조사되었다. 평소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시간부족이나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였다. 이 마을 노인들은 노화 또는 건강악화로 인해 종사하는 일이 없어 하루 모두가 여가시간이고, 반면 장년층은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쉴 시간조차 없어 여가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화정1리 주민들에게는 여가시간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였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폐영농자재는 분리수거함이나 마을공동쓰레기장에 처리한다는 대답이 많았고, 음식물은 집 마당이나 빈터에 매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오염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제5장 결 론

1. 요약 및 결과

본 연구는 충청남도 농촌 주민의 생활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충청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촌지역개발 사업이 농촌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의 문헌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사회의 변화와 특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재 농촌사회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 농업 소득의 감소와 혼주화,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안정적인 삶의 유실, 농촌 공간의 획일화와 환경적 파괴에 따른 컴퓨터로서의 기능 상실, 농촌 마을의 공동체 관계의 붕괴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기존의 농촌지역과 농촌주민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분석하고, 문제점 및 본 연구의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관련연구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① 연구방법 측면에서 볼 때, 질적 또는 양적 연구방법만을 채택하여 생활의 특정 면모가 어떠한 원인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는지 분석하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사향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삶의 맥락이나 요소들이 특정 변수로 분해되어 버린다는 점, ② 연구대상 측면에서 볼 때, 전국/시·도/시·군 단위의 조사 및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마을 또는 가구·개인 단위에 대한 실태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고 평균적인 의미에서의 농촌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그친다는 점, ③ 내용 측면에서 볼 때, 농촌 생활의 특징적 일부분(경제, 여가, 사회적 관계, 사회복지 등)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리 단위의 농촌 마을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농촌 주민의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접근을 위해 질적 및 양적 연구방법을 모두 적용하였다.

셋째, 농촌 주민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수준에 대해 농어촌 마을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농어촌 서비스 기준 8개 부문 31개 서비스 항목에 대해 해당마을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

를 제공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난방, 오페수처리, 인도, 초고속망 4개 항목은 서비스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거 부문은 난방, 오페수처리 항목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농어촌 지역 주민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한 지원 확대와 오페수 처리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교통 부문 중 대중교통 운행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차도와 구분된 인도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도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유치원, 초·학교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통학수단 제공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부문은 모든 항목의 서비스 제공이 양호한 수준이다. 정보통신 부문의 초고속망 서비스는 시설기반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아직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단계적 서비스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삶터, 일터, 쉼터에서의 농촌 주민 생활상을 분석하였다. 삶터(생활공간)에서의 농촌 주민 생활상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해당마을 주민 중 60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58.6%를 차지하고, 20세에서 60세까지의 인구는 40.0%에 불과하여 마을이 초고령화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향 또는 결혼 등의 사유로 40년 이상 장기간동안 마을에 거주한 주민이 많은 반면 새로운 인구 유입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② 노인이 많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 상태가 이들 생활에서 주요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병세와 질병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의술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실제 그리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③ 대부분 자가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교통 부문에 대한 불편사항으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버스 운행횟수가 적고 배차간격이 길다는 점, 노약자들의 버스 승하차가 불편하다는 점이 일부 지적되었다. ④ 평소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본인의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문제, 노후생활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나 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라기보다 어느 곳에 거주하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같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걱정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평소 어려움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딱히 없는 경우가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와 같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대책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터(경제활동공간)에서의 농촌 주민 생활상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농업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많은 농가들은 소규모 경작지를 운영하며 1,000만원 미만의 농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농업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로 농업의 장래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불안감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해당마을도 여느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비농업취업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비농업취업자들은 취업기회가 제한적이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다. 또한 비농가 중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전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도 많은 실정이다. ③ 평소 지출비용의 용도는 의료비, 주거비, 광열수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실질적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민들 대부분이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

쉽터(경관 및 환경공간)에서의 농촌 주민 생활상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을회관이 유일무이하며, 사실상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들 대부분은 이웃 또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집에서 쉬고 TV를 보며 무척 단조로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②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시간부족이나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였다. 이 마을 노인들은 노화 또는 건강악화로 인해 종사하는 일이 없어 하루 모두가 여가시간이고, 반면 장년층은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쉴 시간조차 없어 여가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농촌 주민들에게는 여가시간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였다. ③ 환경오염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폐영농자재는 분리수거 또는 마을공동처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음식물 처리는 매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수립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마을은 이미 초고령화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자연사유로 인한 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한 지속적인 귀농·귀촌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귀농·귀촌인들이 마을 입주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은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생활 전반을 좌우하는 만큼 이에 대응한 지자체의 노력도 요구된다. 공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수준은 높지만 실제 주민들은 주로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고령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서비스는 양호하나 응급환자 차원에서 대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응급상황 대비교육 실시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노인들의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촌지역으로의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기름 값으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난방비 저감대책의 마련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 또는 고령자 대부분은 본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캠페인 형식의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농업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농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의 농가소득은 매우 낮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업 투자재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촌 마을의 영세 소농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비농업취업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고용형태는 매우 불안정하고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등과 같은 이전소득의 중요성은 더 크게 느껴지는 실정이므로 비농가의 일자리 창출 또는 소득지원정책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해당마을은 타 농촌마을에 비해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양호하지만 노약자들의 버스 승하차가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충남도 또는 해당 시·군 차원에서 대중교통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농촌 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과 프로그램 등 여가활동을 할한 여건이 마을 내에 사실상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마을 내 또는 읍·면 단위 여가공간 설치 및 활용도 증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다.

여덟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교육 및 실천이 필요하며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공간이 오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하여 토양, 하천 등의 환경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당초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1년 동안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조사함으로써 농촌 주민 생활상을 집중적·주기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일정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농촌 주민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화적 차이를 지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둘째, 사례지역이 전체 농촌지역을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사례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 평야지대에 해당하는 논산시를 선정하고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채운면 화정1리를 선정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그러나 선정된 리 지역이 수도권 평야 농업지역의 경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논산시 전체의 경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 마을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른 농촌마을의 경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 대상지역이 1개 마을에 그쳐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고 지역별 특수성 반영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 예로써 연구대상마을은 의료서비스와 응급서비스 부문 모든 항목에서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충남도내 청양군이나 예산군과 같은 지역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며 이러한 지역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의 일반적 유형과 특수성을 반영한 유형별 접근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금후의 연구과제로 수행하고자 한다.

넷째,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를 정책적으로 수용해줄 수 있는 범위와 분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어느 범위와 수준까지 검토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충남도가 시행하고자 하는 농촌지역개발 관련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급성, 가능성, 지원가능 지역단위 등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조사와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주희 · 윤순덕, 2008, 노인복지 수요와 자원의 지역별 비교분석, 농촌사회, 제18권 제1호, pp.161-187
- 강희숙 · 이도희, 2004, 농촌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제16권, pp.201-225
- 고정숙, 2006, 농촌마을 주민의 경제생활실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3권 제2호, pp.329-340
- 권일남, 2001, 농어촌 청소년복지실태와 정책방향, 농촌사회, 제11권 제2호, pp.243-273
- 권태환, 1992,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 제2권, pp.39-56
- 농림수산식품부 등, 2009, 제 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 계획, 농림수산식품부 등 11개 부처
- 김경준 · 오혜섭 · 김진모, 2006, 농촌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3권 제1호, pp.85-97
- 김대식 · 전택기 · 배승중, 2010, 농촌마을단위의 정주환경진단지표 개발, 농촌계획, 제16권 제3호, pp.27-42
- 김용렬 · 유학렬, 2009, 일본의 농촌지역통계정보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은정, 2011, 농촌 노인의 복지욕구 유형과 관련요인, 노인복지연구, 제52권, pp.87-108
- 김인, 2006, 농촌지역 노인복지서비스의 욕구와 실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3권, pp.197-224
- 김창민, 2008, 마을 조사와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민속학, 제47권 제1호, pp.7--28
- 김창현 · 박종택 · 박경현, 2007,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 김태명 등, 2010, 농촌활력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필동, 2011, 충남지역 마을연구 : 비교와 종합, 민속원

- 모선희, 2000, 농촌노인을 위한 복지시스템 모형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권, pp.193-214
- 박공주, 2004,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욕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농촌사회, 제14권 제2호, pp.179-206
- 박대식 · 최경환, 200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 최경환 · 박주영, 2009, 삶의 질 향상 기본 · 실행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진도, 2010a,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동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농촌사회, 제20권 제2호, pp.47-80
- 박진도, 2010b, 한국농촌사회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 내발전 발전전략과 농촌사회의 통합적 발전, 농촌사회, 제20권 제1호, pp.163-194
- 박진도 등, 2005,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한울아카데미
- 서선희, 2004, 농촌 노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에 관한 연구: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4권 제1호, pp.179-203
- 석소현 · 김귀분, 2008,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비교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11-321
- 손신영, 2006,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제26권 제3호, pp.601-615
- 손우승, 2005, 마을풍물 연구의 관점과 방법, 민속연구, pp.223-247
- 송정기 · 박재규, 2001, 농촌지역주민의 사회계층과 일상생활 변화 -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1권 제2호, pp.37-66
- 신문기 · 정동섭, 2010, 외암민속마을의 주생활 특성 및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제12권 제1호, pp.29-37
- 오승환 · 윤동성, 200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 - 도시 · 농촌 · 어촌 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32권, pp.119-147
- 오창현, 2005, 한국 농촌공동체의 구성원리: 농촌사회조직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세용 · 박재평, 2007, 농촌 전통테마마을의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사례 연구: 청원군 소전리 별빛한지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건축, 제9권 제1호, pp.51-59

- 윤근섭, 1993,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농촌사회, 제3권, pp.9-37
- 이병기, 2010, 농촌 과소화 실태와 전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7권 제4호, pp.774-797
- 이창식, 2006, 마을공동체의례 별신제의 비교연구방법, 민속연구, 제15권, pp.67-93
- 임형백, 2006, 한국 농촌의 기능 변화 : 식량공급에서 국가균형발전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 학회지, 제17권 제1호, pp.55-65
- 임형백 · 이성우, 2004,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형백 · 조중구, 2004, 생산양식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계획, 제10권 제1호, pp.41-55
- 최상호, 2009,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의 경제적 효과, 관광농업연구, 제16권 제2호, pp.107-130
- 최수명 등, 2011, 농촌계획학 개정판, 동명사
- 최윤지 · 황정임, 2010,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 및 사회서비스 만족도,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7권 제4호, pp.685-716
-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마을연구단, 2008, 논산 병사마을 - 호서 3대 명족 노성윤씨의 옛 터전(충남 지역 마을지 총서), 대원사
- 한경혜, 2005a, 농촌마을의 환경특성과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1호, pp.73-88
- 한경혜, 2005b,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의 특성과 노인들의 상호작용 : 강원도 지역 3개 마을 사례연구, 농촌사회, 제15권 제2호, pp.85-311

OECD, 2001, Multifunctionality: To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Paris: OECD

http://nonsan.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2000528 (논산시지)

<http://gis.ekr.or.kr> (농촌지형정보시스템)

<http://www.nonsan.go.kr> (논산시청)

<http://chaeun.nonsan.go.kr> (채운면사무소)

<http://health.nonsan.go.kr> (논산시보건소)

<http://nongup.nonsan.go.kr>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http://arthall.nonsan.go.kr>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http://youth.nonsan.go.kr>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http://www.cnnse.go.kr>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http://www.yihwa.es.kr> (이화초등학교)

<http://www.kanggyeong.ms.kr> (강경중학교)

www.kangk-g.ms.kr (강경여자중학교)

<http://www.konyang.hs.kr> (건양고등학교)

부 록

부록 1 : 농촌 주민 생활상 연구 조사표 / p.111

부록 2 : 농어촌 서비스 기준 / p.129

부록 1 : 농촌 주민 생활상 연구 조사표

※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농촌 주민 생활상 연구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농촌 주민 생활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는 농촌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농촌의 문제점을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농촌의 현실과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농촌지역 관련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내용은 통계자료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이 연구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9월

충남발전연구원장

※ 회답 및 문의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조은정 초빙연구원
TEL/FAX : 041-840-1208/1219
E-mail : choej@cdi.re.kr

조사자		조사일	년 월 일
주 소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성 명		성 별	①남 ②여
가구번호		세대원 번호	※아래 참고

※세대원번호 : ①세대주 ②남편 ③부인 ④부 ⑤모 ⑥자녀 ⑦며느리 ⑧손자, 손녀 ⑨기타

1 마을 거주에 따른 질문

1) 귀하는 이 마을에 거주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년

2) 이 마을에 거주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고향 ② 자녀교육 ③ 자녀양육, 육아 ④ 교통인근시설 ⑤ 직장, 사업
⑥ 결혼 ⑦ 자연환경 ⑧ 귀농, 귀촌 ⑨ 경제적 사정 ⑩ 기타

2-1) (귀농 · 귀촌자의 경우) 마을에 정착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열악한 인프라(도로, 교통 등) ② 농사의 어려움 ③ 경제적 어려움
④ 낯선 환경에의 적응 어려움 ⑤ 텃세 ⑥ 딱히 없음 ⑦ 기타

2-2) (귀농 · 귀촌자의 경우)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가족 ② 친구 ③ 마을주민 ④ 종교 교우 ⑤ 딱히 없음

2-3) (귀농 · 귀촌자의 경우)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답변 ⇨

3) 귀하는 향후 이주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3-1) 이주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② 자녀 교육을 위해서
③ 소득이 적어서 ④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서
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어서 ⑥ 자녀들이 도시에 살므로
⑦ 기타 (_____)

2 연령에 따른 질문

4)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_____ 세

5) 귀하께서 생각하는 본인의 건강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5-1) (건강하지 않다면)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은 무엇입니까?

- ① 혈압 ② 당뇨 ③ 무릎 관절 ④ 목, 허리 등 ⑤ 심장질환
⑤ 신장질환 ⑥ 위장병 ⑦ 시력질환 ⑧ 기타 (_____)

2-1 의료보건/사회복지

6) 귀하는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집에서 쉰다 ②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③ 기타 (_____)

6-1) (병원에 안 간다면) 귀하의 건강관리방법은 무엇입니까? **※ 이후 11번 질문으로**

답변 ⇨

7) 몸이 아플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보건소(진료소) ② 병의원 ③ 한의원
④ 종합병원 ⑤ 기타 (_____)

8) 지역 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잘 낫지 않음 ② 의료시설 부족 ③ 의료진 부족 ④ 의료장비 부족 또는 노후
⑤ 의료기술 낙후 ⑥ 자녀 권유 ⑦ 기타 (_____)

9) (통원치료의 경우만 해당) 얼마나 자주 의료기관을 이용하십니까?

- ① 1년에 1-2번 ② 1년에 3-6번 ③ 1달에 1-2번 ④ 1주에 1-2번
 ⑤ 1주에 3-4번 ⑥ 매일 ⑦ 가끔 꼭 필요할 때만

10) (최근 1년 이내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만 해당) 입원치료를 받은 시기와 입원일수는?

- ① 입원일수 : _____ 일 ② 입원시기 : _____

11) 다음은 충청남도 복지정책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정책과 향후 혜택을 받고 싶은 정책을 표시해 주십시오.

대상	정책	혜택 대상	희망 정책
여성가족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여성회관		
	한부모가족복지사업		
	어린이학대예방/신고		
	다문화가족		
	한국생활정보		
	충남여성 1366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르신	기초노령연금제도		
	경로우대 - 철도, 항공기 운임 할인		
	경로우대 - 각종 세제혜택		
	경로우대 - 부모 봉양자 주택 우선권		
	재가노인복지 - 주간/단기/방문보호		
	재가노인복지 - 가정봉사원과견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12) 농촌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칠 경우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3) 참여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내 능력, 건강상태로 가능한지 여부 ② 급여 수준 ③ 평소 관심분야 ④ 기타

3 직업에 따른 질문

1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② 무직 ③ 학생 ④ 운송업 ⑤ 일용직
⑥ 회사원 ⑦ 자영업 ⑧ 주부 ⑨ 기타 ()

14-1) (무직이라면) 일을 그만두신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_____년

14-2) (무직이라면) 이전에 종사하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② 무직 ③ 학생 ④ 운송업 ⑤ 일용직
⑥ 회사원 ⑦ 자영업 ⑧ 주부 ⑨ 기타 ()

14-3) (무직이라면) 일을 그만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악화 ② 노화 ③ 결혼 ④ 소득향상 ⑤ 기타 ()

15) 귀댁의 연간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을 포함)

농가	총 _____만원	농업소득 : _____만원 농외소득 : _____만원 이전소득 : _____만원
비농가	총 _____만원	이전소득 : _____만원

※ 농업소득 : 농업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농약, 비료, 광열비, 임차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순수소득
※ 농외소득 : 농가가 농업이외의 타 산업에 종사하여 벌어들인 소득
※ 이전소득 : 자녀나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연금, 정부 보조금 등의 소득

15-1) (소득이 없다면) 귀하는 어떤 방법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계십니까?

- ① 예금·적금 ② 공적연금 ③ 개인연금 ④ 저축·증권 등의 이익
⑤ 부동산·집세 ⑥ 퇴직금 ⑦ 기초생활보장 급여 ⑧ 비동거자녀의 보조
⑨ 동거자녀의 보조 ⑩ 기타 (_____)

15-2) (생계보조수당이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생활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다소 적정 ⑤ 매우 적정

※ 무직일 경우, 다음 4번 카테고리 이동

16) 현 직업에 종사하신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_____ 년

17) 현 직업에 종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계유지 ② 달리할 게 없어서 ③ 가족 따라 ④ 해오던 일이라서 ⑤ 기타

18) 귀하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_____ 시간

19) 현 직업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어려움 ② 다소 어려움 ③ 보통 ④ 거의 어렵지 않음 ⑤ 전혀 어렵지 않음

19-1) (어려움을 느낀다면) 현 직업에 종사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신체적으로 힘들 ② 경제적 보상 적음 ③ 긴 근무시간 ④ 일손 부족
⑤ 기타 (_____)

19-2) (어려움을 느낀다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

20) 귀하 직업의 장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② 좋아질 것이다 ③ 변함없을 것이다
④ 나빠질 것이다 ⑤ 매우 나빠질 것이다

21) 귀하는 주된 직업 이외에 부업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1) (부업을 하신다면) 부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경노동(품팔이, 막노동 등) ② 생산제조업(식품가공·제조, 각종 제작 등)
 ③ 고용업(공장취업, 식당주방일 등) ④ 농축관련업(소사육, 양봉, 농기계작업 등)
 ⑤ 상업(가게·방앗간 운영 등) ⑥ 관청사업(화단조성, 청소 등)
 ⑦ 기타 (_____)

21-2) (부업을 하신다면) 부업에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하루 : _____ 시간 ② 한주 : _____ 일

3-1	직업에 따른 질문	※ 농가의 경우만 응답
------------	------------------	---------------------

22) 귀택에서 재배하는 주된 작목은 무엇입니까?

	재배 작목명	재배면적 (평)	수확량 (kg)	연간판매액 (원)	하우스 재배여부
1					
2					
3					
4					

23) 귀택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 면적(평)은 얼마나 됩니까?

① 논	② 밭	③ 과수원	④ 목장	⑤ 임야	⑥ 기타

24) 귀택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어떻게 판매하십니까? (모두 응답, ※출하비중 표시)

- ① 농협을 통해 ② 인터넷 거래 ③ 시장, 공판장 판매 ④ 이웃, 방문객에 판
 ⑤ 정미소 ⑥ 정부매상 ⑦ 판매 않고 자체 소비 ⑧ 아는 사람을 통해 판매

25)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무엇입니까?

- ① 트랙터 ② 이앙기 ③ 콤바인 ④ 경운기 ⑤ 바인더 ⑥ 예취기 ⑦ 관리기
 ⑧ 분무기 ⑨ 온풍기 ⑩ 건조기 ⑪ 절단기 ⑫ 소형농기구 ⑬ 기타 (_____)

26) 귀하는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다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7) (해당 농가만)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면서 느끼는 특별한 증상이 있습니까?

- ① 특별한 증상 없음 ② 요통 ③ 관절통 ④ 두통, 어지러움
 ⑤ 감기 잘 걸림 ⑥ 기타 (_____)

28) 귀하는 농약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증상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증 상	거의 없음	때때로	항상
(01) 심하게 지친다	①	②	③
(02)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나타난다	①	②	③
(03) 구역질, 구토증이 나타난다	①	②	③
(04) 피부 자극감이 나타난다	①	②	③
(05) 눈의 자극감이 나타난다	①	②	③
(06)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	①	②	③
(07) 초조하거나 우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29) 귀하는 지난 한 달간 다음의 증상(농부증)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증 상	거의 없음	때때로	항상
(01) 어깨가 결린다	①	②	③
(02) 허리가 아프다	①	②	③
(03) 손발이 저린다	①	②	③
(04) 자다가 소변 때문에 1회 이상 일어난다	①	②	③
(05) 숨이 차다	①	②	③
(06)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①	②	③
(07) 현기증이 있다	①	②	③
(08) 헛배가 부르다	①	②	③

30) 귀하는 농산물 가격변화에 대해 느끼는 안전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안전 ② 비교적 안전 ③ 보통 ④ 다소 불안전 ⑤ 매우 불안전

4	세대원 조사에 따른 질문
----------	----------------------

No.	이름	세대주와 관계	동거여부	비동거 사유	거주지역	접촉빈도	직업
01							
02							
03							
04							
05							
06							
07							

*세대주와 관계 : ①세대주 본인 ②부 ③모 ④아들 ⑤딸 ⑥ 며느리 ⑦손자 ⑧손녀 ⑨기타

*거주지역 : ①마을 내 ②채운면내 ③논산시 타 읍면 ④충남도 타 시군 ⑤타 시도 ⑥기타

*접촉빈도 : 주, 월, 년간 접촉횟수 기입

31) (여성취업자가 있는 경우)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적 편견과 관행 ②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③ 불평등한 근로여건
 ④ 육아부담 ⑤ 가사부담 ⑥ 구인정보 부족
 ⑦ 여성의 능력부족 ⑧ 잘 모르겠음 ⑨ 기타 (_____)

※ 취학 전/후 자녀 또는 손주가 없을 경우 다음 카테고리 이동

32) (취학 전 자녀 또는 손주가 있을 경우) 농번기에 자녀는 어떻게 돌보십니까?

- ① 자녀 부모 ② 가족, 친지 ③ 이웃 ④ 육아시설 ⑤ 형제나 친구끼리

32-1) (육아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하는 육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2-2) 육아시설의 불편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

33) 귀댁에 초·중·고·대학생 자녀 또는 손주가 몇 명 있습니까?

① 초등학생 : _____명 ② 중·고등학생 : _____명 ③ 대학생 : _____명

33-1) (초·중·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에서 돌아온 후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 ① 교과목 학원수강(영어, 수학 등) ② 개인과의 ③ 혼자 공부
④ 취미·특기·소질계발 학원수강(미술, 피아노, 태권도 등) ⑤ 친구끼리 공부
⑥ 기타 (_____)

34) 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오토바이 ④ 자가용 ⑤ 통학버스 ⑥ 일반버스

35) (외지로 나가 공부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외지에 나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해당학교가 없어서 ② 학교의 교육시설이 미흡
③ 마을 및 인근의 교육환경(사교육 등)이 열악해서 ④ 기타 (_____)

35-1) 자녀의 거주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기숙사 ② 하숙 ③ 자취 ④ 친척집 거주 ⑤ 기타 (_____)

36) 전반적으로 농촌학교의 교육시설 및 서비스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6-1) (만족하지 못할 경우) 농촌 교육시설 및 서비스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5 주거환경

37) 주택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무상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보증금 있는 월세 ⑥ 기타 (_____)

37-1) (자가의 경우) 귀하는 현재의 주택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 ① 증여 및 상속 ② 부모, 친척 보조 ③ 저축 ④ 용자 및 사채
⑤ 퇴직금보상금 ⑥ 재산 매각 ⑦ 기타 (_____)

38) 귀하는 현재의 주거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8-1) (만족하지 않을 경우)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규모가 작다 ② 방 개수가 적다 ③ 집이 오래됐다 ④ 열악한 구조
⑤ 외관/외형 ⑥ 시설 열악 ⑦ 기타 (_____)

39) 귀댁의 주택에서 불편하여 가장 먼저 수리하였으면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난방시설 ② 부엌 ③ 화장실 ④ 욕실 ⑤ 방
⑥ 현관 ⑦ 문턱 ⑧ 상하수도 ⑨ 도배 ⑩ 전등 등 조명
⑪ 지붕 ⑫ 대문 ⑬ 담장 ⑭ 없음 ⑮ 전체적으로 ⑯ 기타

6 교통/정보/통신

40)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불편한 점 없음 ② 교통수단 노후 ③ 친절도 ④ 교통노선
⑤ 횡수/배차간격 ⑥ 기타 (_____)

41) 귀하는 컴퓨터를 사용하십니까? ① 사용하고 있음 ② 사용하지 않음

41-1)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컴퓨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1주에 1~2회 ③ 1달에 2~3회 ④ 거의 안 씀

41-2)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십니까? _____ 시간

41-3)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컴퓨터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십니까? (해당 사항 모두)

- ① 업무(영농)용 응용프로그램 사용 ② 학습 및 교육용으로 사용
 ③ 인터넷을 통해 업무(영농)에 필요한 정보수집 ④ 인터넷 동호회 활동
 ⑤ 전자상거래(물품구매, 경매 등)에 사용 ⑥ 게임/오락
 ⑦ 기타 (_____)

7 소비지출

42) 귀하의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① _____ 원 ② 잘 알지 못함

43)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3순위까지)

항목	비중순위
① 의료비 : 병원치료비, 약값, 의치, 보정기, 보약비 등	
② 식비 : 주식류, 부식류	
③ 피복비 : 의류, 신발, 이불 등	
④ 주거비 : 주택수리비, 집세, 연료비	
⑤ 광열수도비 :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⑥ 교육비 : 학비, 학원비, 자녀용돈, 책값 등	
⑦ 저축, 보험, 연금	
⑧ 교통통신비 : 차비, 전화요금 등	
⑨ 관혼상제비 : 생일, 혼인, 장례, 제사 등	
⑩ 교양오락, 여가문화비 : 여행, 신문구독료 등	
⑪ 미용위생비 : 목욕, 화장품, 이미용 등	
⑫ 종교	
⑬ 기타 : 술, 담배 등	

44) 귀하는 노후준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 ① 안함 ② 예·적금 ③ 부동산 ④ 자녀에게 의지 ⑤ 연금·보험 ⑥ 기타

45) 귀하는 생필품을 구입할 때 주로 어느 지역을 이용하십니까?

- ① 마을내 ② 채운면소재지 ③ 논산시내 타 읍면 ④ 논산시내
⑤ 충남도내 타 시군 ⑥ 인터넷 ⑦ 타지역 (_____)

46) 귀하는 생필품을 구입할 때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 ① 이동차량 및 노점상 ② 동네가게 ③ 일반 시장 ④ 슈퍼마켓 및 연쇄점
⑤ 백화점 및 쇼핑센터 ⑥ 대형할인매장 ⑦ 도매시장/직판장 ⑧ 기타 (_____)

8 여가

47) 귀하는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5순위까지 기입)

TV 시청		신문, 잡지보기, 독서	
비디오, DVD 시청		화투, 장기, 바둑, 오락, 잡기	
라디오 듣기		인터넷, 게임	
음악 감상		여행, 관광	
집에서 휴식(낮잠 포함)		쇼핑	
산책, 스포츠		예술감상	
등산, 낚시		문화예술활동 참여	
스포츠 관람활동		생활취미 활동	
이웃, 친구와 이야기		종교활동	
친구만나기, 모임참가		사회봉사활동	
가족과 대화, 외식		여가시설프로그램 참여	
음주		화단 가꾸기 등	
기타1 (_____)		기타2 (_____)	

※ 여가시간 :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의무적 시간이 아닌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행하는 일

48) (집, 일터 이외에) 여가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 ① 마을회관 ② 경로당 ③ 건강관리실 ④ 복지회관 ⑤ 건강체육시설
 ⑥ 시민회관 ⑦ 도서관 ⑧ 박물관/미술관 ⑨ 문화센터 ⑩ 공연장
 ⑪ 면사무소 ⑫ 농업기술센터 ⑬ 딱히 없음 ⑭ 기타 (_____)

49) 마을에서 주로 만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 ① 길가다 만나는 주민(무작위) ② 같은 종교신자 ③ 회관에 모인 사람
 ④ 집주변 주민(이웃) ⑤ 또래 친구 ⑥ 따로 없음 ⑦ 기타

50) 주로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십니까?

- ① 먹고 사는 이야기 ② 농사 ③ 가족, 자녀 ④ 건강
 ⑤ 종교 ⑥ 따로 없음 ⑦ 기타 (_____)

51) 귀하는 최근 1년간 국내외여행을 얼마나 다녀오셨습니까? 동행인에 따라 구분하여 횟수를 말씀해 주십시오.(금강산관광 등 북한여행은 국내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혼자	부부	가족	단체
(1) 국내	_____회	_____회	_____회	_____회
(2) 국외	_____회	_____회	_____회	_____회

52) 귀하가 여가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시간 부족 ② 경제적 부담 ③ 관련시설 부족 ④ 프로그램 부족
 ⑤ 정보 부족 ⑥ 함께 할 사람 없음 ⑦ 적당한 취미가 없음 ⑧ 건강 문제
 ⑨ 딱히 없음 ⑩ 기타 (_____)

9 환경

53) 귀댁은 일반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① 마을공동 쓰레기장에 처리 ② 빈터나 강물에 처리 ③ 분리수거
 ④ 자체적으로 태움(소각) ⑤ 기타 (_____)

54) 귀댁은 음식물 쓰레기를 주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① 마을공동 쓰레기장에 처리 ② 동물 사료로 활용 ③ 분리수거
④ 빈터에 매몰 처리 ⑤ 퇴비, 거름으로 활용 ⑥ 기타 (_____)

55) 귀댁은 재활용품을 주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① 마을공동수거함에 처리 ② 자체적으로 태움(소각) ③ 유상보상업체에 판매
④ 빈터나 강물에 처리 ⑤ 기타 (_____)

56) 귀댁에서는 폐비닐, 농약병 등 폐영농 자재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① 분리수거 ② 매립 ③ 소각 ④ 농경지 주변에 투기
⑤ 유상보상업체에 처리 ⑥ 해당 없음(농사 짓지 않음)

57) 귀댁은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① 처리하지 않음 ② 정화시설을 통한 처리 배출 ③ 기타 (_____)

58) 아래의 환경오염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음 매우 깨끗함	약간 좋음 약간 깨끗함	보통	약간 나쁨 약간 오염	매우 나쁨 매우 오염
전반적인 환경	①	②	③	④	⑤
수질	①	②	③	④	⑤
소음	①	②	③	④	⑤
악취	①	②	③	④	⑤
공기	①	②	③	④	⑤
토양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

59)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가족원 건강문제 ② 본인 건강문제 ③ 노후 생활 ④ 자녀 문제
⑤ 부부 문제 ⑥ 노부모와의 문제 ⑦ 경제적 문제 ⑧ 혼자 사는 것
⑨ 육아의 어려움 ⑩ 없음 ⑪ 기타 (_____)

60) 귀하는 우울 또는 소외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 ① 전혀 느끼지 않음 ② 가끔 느낌 ③ 자주 느낌

61)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니까?

- ① 가족 ② 이웃 ③ 친구 ④ 기관 ⑤ 딱히 없음 ⑥ 기타

62) 마을의 가장 시급한 과제 3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63) 다음 각각의 사항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많이 향상	약간 향상	변화 없음	약간 낙후	많이 낙후
지난 5년 간 생활여건의 변화	①	②	③	④	⑤
지난 5년 간 마을여건의 변화	①	②	③	④	⑤
향후 10년 후 귀하의 생활여건	①	②	③	④	⑤
향후 10년 후 마을여건	①	②	③	④	⑤
타 지역에 비교한 마을 평가	①	②	③	④	⑤

64) 다음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거의 참여 안함	가끔 참여	항상 참여
(01) 마을 공동회의(총회, 대동회 등)	①	②	③
(02) 마을 청소	①	②	③
(03) 마을 행사(축제, 잔치, 여행, 전통행사 등)	①	②	③
(04) 마을 단체(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①	②	③
(05) 기타 ()	①	②	③

65) 다음의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가입 및 활동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가입하지 않음	이름만 올림	적극 활동
(01) 협동조합(농협, 축협 등)	①	②	③
(02) 생산자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①	②	③
(03) 학습단체(품목별연구회, 4H, 생활개선회 등)	①	②	③
(04) 농업관련단체(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①	②	③
(05) 자원봉사단체(적십자회, 라이온스, 로타리, JC 등)	①	②	③
(06) 종교단체(종교생활외의 사회활동)	①	②	③
(07)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등)	①	②	③
(08) 정당	①	②	③
(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위원회	①	②	③
(10) 사회적기업	①	②	③
(11) 기타 ()	①	②	③

11 외국인 추가질문

66) 귀하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답변 ➡

67) 한국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국제결혼 ② 농업관련 종사자 ③ 일반산업 종사자
④ 교육계 ⑤ 기타 ()

68)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양육문제 ② 언어문제 ③ 직업 ④ 교육
⑤ 문화적 차이 ⑥ 기타 ()

69) 다문화가정시설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용하신다면 시설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답변 ⇨

71-1) (다문화가정시설을 이용한다면)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은 무엇입니까?

만족도 ⇨

불편사항 ⇨

※ 기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부록 2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부문 (개수)	관련 항목	서비스 기준	관련 기관
주거 (5)	거주가능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¹⁾ .	농식품부 국토부 지자체
	난 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지경부 산림청
	공동시설 프로그램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자체 농진청
	안전한 마실 물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환경부 지자체 농식품부
	오폐수처리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환경부
교통 (3)	대중교통 운행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자체 (국토부)
	여객선운행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국토부 지자체
	인도 설치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지자체 (행안부 국토부)
교육 (6)	유치원/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교과부

1) 거주가능주택 항목은 국토부 '11년에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목표조정 검토

부문 (개수)	관련 항목	서비스 기준	관련 기관
교육 (6)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교과부
	폐교요건	폐교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과부 지자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제고한다.	교과부
	교육발전위원회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교과부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교과부 문화부 지자체
보건 의료 (3)	1차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복지부
	의약품구입	자동차로 20분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복지부 지자체
사회 복지 (5)	노 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복지부)
	청소년	자동차로 30분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복지부
	아 동	자동차로 20분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복지부 교과부 지자체 농식품부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복지부 지자체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농식품부

부문 (개수)	관련 항목	서비스 기준	관련 기관
응급 (5)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복지부 소방청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소방청 해경청
	소방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인다.	소방청
	도난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지자체 (경찰청)
	경찰서비스	112 신고시 90% 이상 5분내에 현장에 도착한다 ²⁾ .	경찰청
문화 여가 (3)	독 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문화부 지자체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문화부 지자체
정보 통신(1)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80% 이상에서 IPTV 시청이 가능하다.	방통위

2) 경찰서비스 항목은 '10년에 112신고 평균 출동시간으로 기준 변경시 이에 따라 목표조정 추진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조은정 초빙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문정환 초빙연구원

전략연구 2011-07 · 충남 농촌주민의 생활상 연구

글쓴이 · 조은정 · 문정환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1년 12월 31일 / 발행 · 2011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208(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77-9 03350

<http://www.cdi.re.kr>

©2011.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